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75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2월 4일)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3월 7일 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된 자승 대종사 100재에서 해봉문도회 의장 탄원 스님이 자승 대종사 영전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봉정하고 있다.

“무주처열반, 자승 대종사 언제나 함께”

봉은사서 자승 대종사 100재, 주요 인사 대거 참석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비롯해
진우 스님 등 종단 대표자들
자승 대종사 영전에 정진 다짐
정관계 인사 포함 500명 참석
진우 스님 “대종사 덕화 기려”

팔공총림 방장 의현 대종사는
대학생 전법기금 3억원 기탁
탄원 스님 “모든 분들께 감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상월결사를 이끌며 대중불교 수행풍토를 확산하고, 대학생 전법에 매진한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원적 100일을 맞아 사부대중이 불교중흥을 위해 보다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3월 7일 경내 법왕루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 100재’를 봉행하고, 대종사가 남긴 전법 유지와 향훈을 기렸다. 100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를 비롯한 원로의원스님들과 팔공총림 방장 의현 대종사, 총무원장 진우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육원장 범해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등 교역직스님들,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과 각 교구본사주지스님들, 중앙종회의원, 상월결사 인도순례단과 동국대 관계자,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등 각 포교·신도단체장, 국회 정각회 주호영·이원욱 의원 등 500여 대중이 운집했다.

자승 대종사 영전에 삼배를 올리며 시작된 100재에서 대표 헌향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했다. 이어 해봉문도회 의장인 탄원 스님이 대종사 원적 이후 추서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영전에 봉정했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비구니종회의원 대표 정운 스님, 최진식 봉은사 신도회장, 이명숙 봉은사 신도회 사무총장이 각각 사부대중을 대표로 헌화했다. 종사영반은 종단 어산어장인 인묵 스님을 필두로 법안·도피안·보일 스님이 맡았다.

진우 스님은 추모사에서 “자승 대종사가 몸소 실천한 신행의 연속이 세상을 향한 한국불교의 자존이자 결집”이라며 “아직 더 말씀하시고 더 보여주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각자의 몫이라는 스님의 안목이셨으니 사부대중은 저마다의 위치에서 세상을 비추는 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대종사의 향훈을 되새겼다.

진우 스님은 이어 “나와 우리만이 아닌 공심의 저울로 원력의 크기를 가늠하면 수행과 전법의 가치는 세상을 향해 우뚝 서게 된다. 대종사께서 평소 강조하신 진솔함이었으니 이 또한 대종사를 추모하는 사부대중의 공덕”이라며 “꽃잎이 떨어지듯 소리 없이 적멸에 드셨으나 추모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그 향기 전하는 정진의 공덕은 쉼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주처열반’을 언급한 진우 스님은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으니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한다. 수행과 전법의 곳곳에서 안주하거나 방일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는 세상 어느 곳에나 있어야 할 열반의 본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팔공총림 방장 의현 대종사는 사단법인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기금으로 3억원을 희사하며 생전 대종사가 화두로 던진 ‘부처님 법 전합시다’ 가치에 뜻을 함께했다. 의현 대종사는 이날 기탁한 3억원을 “저잣거리를 돌며 직접 탁발해 모은 정재”라고 설명한 뒤 “앞으로도 계속 탁발하면서 대학생 전법의 성공적인 회향을 위해 분골쇄신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승 대종사를 ‘선지식’으로 높이고 스스로를 ‘소승’이라고 낮춰 표현한 의현 대종사는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께서도 살림이 어렵겠지만 대학생 전법기금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의현 대종사 외에 지난 2020년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최고령 동참자였던 이채순 보살도 100재에 참석해 대학생 전법기금 1000만원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이에 해봉문도회 의장 탄원 스님은 “은사스님 뜻을 받들어 종단 발전에 기여하는 문도회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으며,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자승 스님께서 전법이라는 숙제를 남기셨다. 앞으로 스님 유지를 잘 받들어 대학생 전법에 매진하겠다”고 참석 대중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정치인들 육바라밀행으로 보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국회정각회, 3월6일 신춘법회 봉행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 초청 법문
의원들, 중도 · 화쟁정신 실천 ‘다짐’
진우 스님 108배 정진 동참하기도

여야 불자 국회의원들이 불교의 중도·화쟁 정신으로 상생의 정치를 이룰 것을 다짐했다.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는 3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신춘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법명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우인 정사(불교총지종 통리원장)·만청 스님(대각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진호 스님(원융종 총무원장) 등이 참석했다. 수석부회장 덕수 스님을 대신해 천태종 종의회 부의장 경천 스님이 자리했다.

국회 정각회에서는 주호영 회장을 비롯해 이원욱 명예회장, 이헌승 수석부회장, 김영배 수석간사, 이수진 간사, 황보승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자의원들이 앞장서 화쟁과 중도 정신으로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갈 것을 제안했다.

주호영 회장은 “한국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불자의원들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현실 정치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자의원들부터 중도와 화쟁 정신을 바탕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해 지혜와 자비의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며 “청정법안(淸淨法眼)의 바른 지혜의 눈을 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겨 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사로 나선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정치인들이 육바라밀행을 통해 보살의 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누구보다도 정치인들이 불교를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에게 ‘보살이 되라’고 한다”면서 “보살이 하는 행동이 육바라밀이다. 정치인들이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보살이 하는 행동인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고 설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정치인들에게 선(禪)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스님은 “순간순간 찰나 마음을 내려놓는 방하착을 하고 이것이 연속이 되면 스스로 편안해진다. 이것이 진짜 선의 모습”이라며 “선정바라밀에 이르면 지혜가 나타나고 걸림없이 행동할 수 있다. 그런 삶 속에서 나오는 행동은 육바라밀행이 되고 결국은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법회 참석 사부대중은 국태안민(國泰安民)을 이룰 정책을 입안할 지혜의 눈을 뜨고, 선명상 대중화에도 앞장설 것을 부처님께 발원했다.

한편, 진우 스님은 법회에 앞서 국회 본관 정각선원에서 108배 정진을 진행했다. 이날 정진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스님과 국회 정각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108배 정진 이후에는 국회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차담을 이어갔다.

신중일 기자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협 부회장단 스님들과 정각회원들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



출처_
『슬기로운 출가생활』 일러스트

참 삶을 위한 메정

출가

한 자녀가 출가하면 구족이 은덕을 입는다
（一子出家 九族生天）

출가사이트

출가장려 기금 모연 안내

종단은 부처님 가르침의 상속자인 승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출가장려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대흐름에 발맞춰 출가 대중화·현대화를 위한 출가장려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세우다』 출가장려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연을 하고 있으니 사부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금 기간** : 2024. 3. 11(월) ~ 2024. 5. 31(금)
- **모금 사용처** :
  - 출가홍보책자 『슬기로운 출가생활』(담앤북스) 보급운동 (군법당, 대학교 불교동아리 등)
  - 부처님오신날 KBS 특집다큐 <출가> 제작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 방영)
  - 출가장려 캠페인 홍보, 교육, 설명회, 지원사업 등
- **모금 동참 계좌** : 농협 301-0248-0882-41(예금주 : 아름다운 동행)
  ARS : 060-700-0012(한통화 3천원)
  문의 : 02-6273-0108(아름다운 동행), 02-737-0863(미래본부)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조계종 산하 연구소들 '싱크탱크'로 통합

조계종 기획실장 우봉 스님, 조직개편 방향 브리핑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교육원·포교원' 종헌서 삭제
재건축 앞서 건물 철거 의미
"역량 분산보다 집중이 필요"
연구소 통합, 규모 확대 계획
종헌 개정 후 전 종도 공청회



교육원과 포교원을 종헌에서 삭제해 총무원의 중앙종무기관 단일화 작업을 추진 중인 조계종이 향후 조직 개편 시 종단 산하 연구소들을 묶어 종책을 개발하는 이른바 '싱크 탱크(think tank)'를 구성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조직 개편 이후 출가 장려와 포교가 더 강화되도록 총무원장이 책임지고 이끌 수 있는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사진〉은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 브리핑'을 열고, 조직 개편에 앞서 필요한 종헌 개정 취지와 향후 방향성을 설명했다.

우봉 스님에 따르면 조직 개편을 위한 1차 밑작업은 종헌 개정이다. 교육원과 포교원이 지금처럼 종헌 기구로 남아있으면 3원 통합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원과 포교원 조항을 삭제하는 종헌 개정은 사실상 재건축에 앞서 필요한 기존 건물 철거인 셈이다.

우봉 스님은 "교무·전법·문화·복지·대사회 활동 등의 동력 제고를 위해 총무원장이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총무원 전체 역량이 집중되기보다는 분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직 개편에는 종단 산하 연구소의 통합도 포함된다. 현재 산하 연구소로는 미래본부 내 불교사회연구소, 교육원 불학연구소, 포교원 포교연구실이 있다. 총무원은 연구소들의 활동이 각자의 영역에만 국한되면서 종단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종책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출가' 업무는 현행 직제에서 담당 부서가 없을뿐더러 별도 종책도 없는 상황이다. 앞서 교육원이 출가 장려를 위해 홍보사업을 하고, 출가상담사를 운영했지만 교육원의 주 업무는 행자·기본·전문 교육과 승가고시 등이다. 이로 인해 사안에 따라 위원회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우봉 스님은 "앞으로 획기적인 종책이 필요한데 세 연구기관이 각자의 연구만 하면서 '싱크 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량 분산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연구소를 통합해 규모를 키우고 제대로 된 종책을 생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무원은 오는 3월 19일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종헌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원로회의, 중앙종회,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종헌 개정 이후에는 전 종도를 대상으로 한 조직 개편 관련 공청회를 수차례 열어 지혜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특히 총무원은 3원 통합도 하나의 안일뿐 공청회를 거쳐 더 좋은 안이 마련된다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봉 스님은 "조직 개편은 특정한 속내를 갖고 추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종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종단은 총무원과 중앙종회, 호계원이라는 삼권분립을 유지하고 있기에 3원 통합을 총무원장의 권력 집중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총무원·종회 각각 발의 예정

조직개편 필요성 부각 차원…설명 자료도 배포

조계종이 1994년 종단개혁 이래 30년 만에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첫 단추인 종헌 개정을 위해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각각 개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은 같지만 조직개편이라는 화두가 행정부뿐만 아니라 종단 전체로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걸 부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이하 미래특위)는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논의해온 의견들을 추려 임시회에 발의할 종헌 개정안을 성안했다.

개정안은 교육원과 포교원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현행제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같다. 다만 현행 종헌에서는 총무원장의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종교지도자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등 대표직 겸임이 제한돼 현실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키로 했다. 이는 총무원의 종헌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추가 의견을 다룬 것이다.

미래특위는 이 같은 종헌 개정안을 중앙종회와 총무원장 명의로 각각 발의하기로 했다. 중앙종회는 미래특위를 구성하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점을, 총무원은 조직개편 당사자로서 의지를 피력하겠다는 취지다.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총무원과 미래특위가 각각 종헌 개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병합해 통과시킨다면 제2의 종단개혁이라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다른 위원스님들도 30년 만의 일이라는 점, 종헌 개정은 종회가 앞장서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했다.

더불어 총무원과 미래특위는 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해 전 종도들에게 종헌 개정,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알리는 간략한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탄자니아에 아동센터 건립 추진한다

아름다운동행, 제20차 이사회
사업성과 및 올해 계획 논의



아름다운동행 이사진이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달하는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지난해 일군 사업성과를 되짚어보고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름다운동행은 3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20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아름다운동행은 먼저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의논했다. 2024년 주요 활동국가로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꼽은 아름다운동행은 탄자니아에서의 불법 홍보와 불교인재 양성을 위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법당과 보리수 아동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법당과 아동센터는 올해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모금과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운영과 탄자니아 어린이들에게 옥수수영양죽을 선물하는 해피콘 사업 등 해외지역개발사업 역시 지속운영할 방침이다.

국내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짜장공양'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한다. 정기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접 짜장면 공양을 나누는 해당 사업을 위해 자원봉사자 참여 및 대면 봉사활동을 확대한다. 개안수술, 소아암 환아지원, 위시박스, 초등학교 입학생 책가방 지원사업 등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도 꾸준히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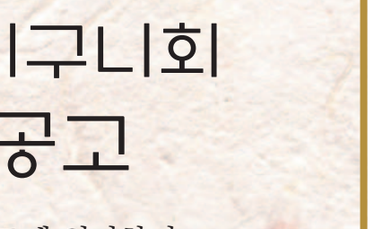
지난해 사업성과도 발표했다. △2023년 총 모금액 102억원 달성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겨울철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대면 봉사 활동 및 청소년 문화탐방 프로그램 '나의유산만들기' 성료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모로코, 국가부도를 맞은 스리랑카에 물자 지원 △국내 집중호우 및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구호 시행 △국내 저소득가정 지원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운영 안정화 등 성과를 발표한 아름다운동행은 이를 밑거름삼아 향후 추진할 사업에 진력할 방침이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진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과 감사님께 감사하다. 아름다운동행은 국내사업은 물론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을 운영하는 등의 해외사업도 진행 중이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아름다운동행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우 기자

하동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 임명

총무원장 진우 스님, 3월 6일 임명장 수여

종로 대각사 종원 스님 재임



조계종 제13교구본사 하동 쌍계사 주지에 지현 스님이 임명됐다.〈사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앞서 쌍계사 주지후보로 선출된 지현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쌍계사는 고산 큰스님께서 주석하셨고, 과거 진각 국사가 차를 가져와 부흥시킨 차의 시배지와도 같다"며 "앞서 주지를 역임하신 영담 스님께서 교구장으로서 고산 큰스님의 유지를 잘 이어온 만큼 지현 스님도 쌍계사 교구 위상을 높이고 대중화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지현 스님은 "회주이신 영담 스님께서 일궈놓은 불사를 잘 받들고 종단 불사에도 외호하며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지현 스님은 임명장을 받은 뒤 조계종 주요 종책불사인 '천년을세우다'에 3000만원을 기탁했다.

한편 조계종 직할교구 종로 대각사 주지 종원 스님은 같은 날 재임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임명장 수여 후 "직할사찰인 대각사의 가람 수호와 대중포교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종원 스님은 "대각사는 초하루와 보름, 관음·지장·약사재일 법회까지 월 5번의 법회를 보고 있다. 소임을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8차 정기총회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회칙 제4장 18조에 의거하여
제18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사업 승인 및 예산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상정 토의할 예정이니
전국의 비구니스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불기2568(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T. 02-3411-8103)
■ 안 건 : 1. 2024년 사업승인 및 예산심의의 건
2. 법인 감사 보고의 건
3. 운영위원회 보고의 건
4. 조직개편 보고의 건
5. 기타 안건

참여와 도약으로
불교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불기2568(2024)년 3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

“이승만기념관 반대…서울시장 만나자”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
빠른 시일 내 면담 일정 조율
면담 거부 시 정진 기도 진행
태고종과 연대 방안 모색키로


이승만기념관의 건립 추진에 강한 비판을 한 종교편향특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종교편향특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종교편향특위는 3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열린송현녹지광장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 관련 논란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대응을 위해 이같이 결의했다. 조속히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이승만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다. 오 시장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에는 뚜렷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서울시광장에서 정진 기도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오 시장이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불교계 안팎에서는 “이승만기념관 건립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조계종 종교편향특위를 비롯해 중앙신도회, 태고종 중앙종회 등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불교를 분열시키고 박해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 추진은 한국불교에 대한 큰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오 시장이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 계획을 강행하자 종교편향특위 차원에서 대응 수위를 높인 셈이다.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차이가 있겠지만 제주 4·3 사건과 여순학살을 자행하고 ‘사사오입’을 통해 헌법 질서를 훼손한 인물”이라며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내세우는 것은 심각한 역사왜곡”이라며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오세훈 시장이 송현광장을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 광장으로 두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개인적 욕망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태일 뿐”이라고 밝혔다.

위원 제정 스님은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부각하는 것은 상해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항일운동사를 지우려는 의도”라며 “‘건국’이란 용어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민정치, 독재정치로 점철된 이승만의 기념관을 송현광장에 세운다는 건 전두환 기념관을 광주에 세운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장 덕림 스님도 “불교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탄압했던 이승만에 (기념관을 건립할)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줘선 안 된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역사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고종과 연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광 스님은 “태고종에서도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다”며 “태고종, 나아가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과 연대활동으로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를 위한 불교계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는 위원장 선광 스님과 위원 제정·종원·설해 스님, 중앙종회 사무처장 설도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도심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덕림 스님이 참석했다.

“남북, 적대 멈추고 평화의 길로”

민추본, 조계사서 평화기원법회
태효 스님 “평화 다시 위협받아”



서울 한복판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목소리는 제각기 달랐지만 남북화합과 평화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았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는 3월 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 개정을 통해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고 ‘자주·평화·민족대단결’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한 것.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사회부장 도심 스님, 문화부장 혜공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 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을 비롯한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 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성화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근래의 남북 관계는 봄이 아닌 겨울을 다시 맞았다. 군사적 위기가 심화하는 이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불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추본의 남북평화기원법회가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한 불교계의 뜻과 노력이 대외적으로 천명되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본부장 태효 스님은 “우리는 분단과 전쟁을 겪은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격랑의 시간을 거친 끝에 평화를 이뤄냈지만, 그 평화가 다시 위협받고 있다”며 “불교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이해, 비폭력, 관용, 자비 등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회는 부처님의 평화의 가르침을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 실천하자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쟁반대 평화기원 다라니기도와 전쟁희생자 위령천도재는 진관사 수륙재보존회 어산스님들이 맡았다. 어산스님들과 함께 다라니기도를 독송한 사부대중들은 온 마음을 다해 남북의 화합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전쟁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평화의 가르침을 받들어 합심하고 통일의 뜻을 모아 분단을 건너는 징검다리가 되는 대비원력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법회의 마지막은 조계사 일주문을 출발해 공평사거리를 거쳐 해탈문으로 되돌아오는 연등행렬로 장엄됐다. 사부대중은 저마다 남북 평화와 화합, 통일을 기원하는 연등을 들고 행진하며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계의 뜻과 의지를 세상에 알렸다.

이민우 기자



진우 스님, 국가보훈부에 “애국에 진영 없어”

3월 7일 강정애 장관 예방
불교계 애국 활동도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3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균형적인 국가유공자 조명과 보훈을 주문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최근 진영논리가 극심해져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균형적으로 유공자의 업적을 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애국의 가치가 희석되는 요즘, 애국자를 잘 보훈해야 미래세대가 애국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며 “애국자를 기리는 것이 국가보훈부의 역할이자 애국자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강정애 장관은 “다사다난한 역사 속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오늘을 만들었다”며 “‘모두의 보훈’ 슬로건 아래, 보훈을 특정일에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언제나 국가유공자를 기릴 수 있도록 부처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불교계의 애국활동 역시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사적으로도 한국불교계는 애국과 관련이 깊다”며 국난의 시기에 일어난 승병활동과 만해 한용운 스님·백초월 스님, 태극기가 발견된 진관사 등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언급했다.

강 장관은 “역사적으로 국가위기를 극복하는데 불교계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보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교계와 협력하고 (불교계의) 업적을 기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 국가보훈부 최규정 정책보좌관, 용교순 보훈문화정책과장, 홍경화 운영지원과장이 배석했다.

이민우 기자

한국불교기자협회장에 김보배 밀교신문 차장

임시총회서 만장일치 선출…부회장에 윤호섭 본지 기자



제22대 한국불교기자협회장에 김보배 밀교신문 편집차장〈사진〉이 선출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이하 불기협)는 3월 5일 서울 전국여성불자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에 김보배 밀교신문 차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에는 윤호섭 현대불교신문 차장을 선임했으며, 부장단 인사는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회원 26명 가운데 위임을 포함해 24명이 참석해 성사됐다.

김보배 신임회장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회장으로 선출해주신 회원들의 믿음에 노력으로 보답하겠다”며 “불기협 설립 취지와 같이 선후배 간 소통 활성화에 힘써 회원사 및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우의를 증장하겠다”고 인사했다.

김보배 불기협 제22대 회장 당선자의 임기는 2024년 3월부터 2년이다. 김 신임회장은 2006년 밀교신문에 입사했으며 불기협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신중일 기자



수경 스님 "승가, 일체 권력서 자유로워져야"

'불교평론' 봄호서 불교환경운동 방향 제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비구는 '乞士'…정신은 지켜야
생산 떠남으로 세상과 결속 때문
"승가, 환경문제 책임자에 죽비"
권력 무력한 대중 옆 서는 게 '중도'
"환경운동, 자비로운 삶 위한 기도"

무너져가는 새만금을 되살리기 위해 전국을 삼보일배했던 '환경보살' 수경 스님이 앞으로 불교환경운동의 방향으로 '보살행으로서 자비로운 삶을 위한 기도'라는 작은 곳에서의 실천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승가에는 "정치와 자본권력에 자유로운 집단이 돼야 한다. 권력에 무력한 대중들의 옆에 서는 것이 중도행"이라는 일침을 내렸다. 지난 2010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연히 모습을 감췄던 수경 스님이기에 사부대중을 위한 스님의 고언이 더 깊이 와닿는다.

수경 스님(사단법인 세상과함께 한주)은 〈불교평론〉 봄호(통권 97호)에 특별기고한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를 통해 불교환경운동의 방향성을 제언했다.

기도·가피·공양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스스로의 환경운동과 보살행의 과정을 되짚은 수경 스님은 '소욕지족으로 복덕의 가피를 구하는 기도'가 불교환경운동의 정신적 바탕이 돼야 한다고 했다. 무너져가는 자연 앞에 우리는 작게 살고, 적게 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업(業)과 습(習)으로 인해 그리 살기란 쉽지 않기에, 수경 스님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한주 수경 스님.

'우리'라는 말 뒤에 숨는 국가와 기업

수경 스님은 환경문제가 '공업(共業)'임을 분명히 했다. 스님에 따르면 자가용 운전의 경우 개인이 짓는 불공업이지만, 그것들이 일으킨 오염의 합은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공업이 된다. 수경 스님은 "현대사회에서는 공업과 불공업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면서도 "환경문제의 경우 공업과 불공업이 합해 이뤄진 것이지만, 결과는 모두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업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환경문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 작금의 문제라는 게 수경 스님의 지적이다.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책임을 많이 져야 하는 당사자인 국가와 기업들이 '우리'라는 말 안으로 숨어버리는 현대사회의 구조가 가장 문제라는 것이다.

수경 스님은 "(환경문제는) 국가나 기업의 책임에 비하면 각 개인의 몫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를 도외시하고 우리의 문제로 묶음처리하는 것은 국가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연대에도 한계가 있다. 매일의 생계가 벅찬 사람들에게 환경운운하는 것도 죄스런 일"이라고 자조하면서도 "그래서 NGO와 종교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단체 가운데서도 "불교의 출가 수행자 집단인 '승가'가 최적임자"라는 게 수경 스님의 주장이다.

승가가 왜 환경운동의 적임자인가

수경 스님은 왜 한국불교의 승가가 환경운동의 적임자라고 했을까. 비구와 비구니로 이뤄진 승가는 생산에서 멀어진 집단이기 때문이다. 스님에 따르면 출가수행자는 비구(니)라고 하는데 이는 산스크리트어 'Bhiksu'의 음역으로 의미는 '걸사(乞士)'이다. 일체 생산을 하지 않고 걸식으로 생을 살아가야 하기에 비구(니)는 "세속과 관계를 끊은 출리적 존재"이다.

이에 수경 스님은 "승가의 출리성은 생산관계로부터 '떠남'으로써 단단해지고, 그것으로써 세상과 강력하게 '결속'된다"며 "비구가 인천사(人天師)로서 세상과 하늘의 사표가 될 수 있는 도리가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승가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이고, 그래야만 한다. 왕이 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권위가 거기서 나온다"고 역설하며 "승가는 공동체성이 붕괴된 현대사회에서 환경문제에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들에게 개개인을 대신해 죽비를 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경 스님은 현재의 승가에 올바른 중도를 행할 것도 주문했다. "모든 승가가 환경운동가가 될 것 없다"고 말한 수경 스님은 "다만, 부처님이 행하신 대로 본분사에 충실하면 된다. 말 못하는 자연의 편에 서는 것, 환경위기에 따른 피해에 취약한 약자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제가 아는 중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력과 자본의 힘 앞에 무력한 대중의 편에서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기꺼워하는(기쁘게 여기는) 것이 승가의 중도행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것을 하지 않고 화엄의 사사무애(事事無碍)를 말한다는 것은, 구름 위에 떠올라 어디에도 걸림없이 활보하겠다는 '원대한 망상'"이라고 꼬집었다.

앞으로의 불교환경운동은…

수경 스님이 말하려는 환경운동의 방향성은 명징하다. '소욕지족을 통한 복덕구족을 지향하는 삶'이다. "물과 공기조차도 자본주의에 지배되는 세상에서 '자발적 가난' 같이 듣기 좋은 고담을 늘어놓을 생각은 없다. 아낄 것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욕지족'을 말하기도 면구하다"고 밝힌 수경 스님은 "말하고 싶은 소욕지족은 알뜰한 삶이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재활용하고, 종이컵을 안 쓰는 것이 방생이라는 인식정도는 하고 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경 스님은 "지금의 한국불교는 '거룩함'에 매몰되어 버렸다. '좋은 삶'에서 오는 '복덕'의 가치는 기복으로 오해받아 밀려났고, '지혜'는 깨달음 지상주의에 의해 신비화되어 버렸다"면서 "우리의 삶과 목숨을 알뜰히 여기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복덕구족'의 삶"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 불교환경운동은 복덕구족을 지향하는 좋은 삶, 보살행으로써 자비로운 삶을 위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우리 모두 장금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장 담그는 날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스님)이 3월 6일 관내 장체험관에서 장금이와 함께 장독분양사업 '장 담그는 날'을 진행하며 3월 봄을 시작했다.〈사진〉

참가자들은 자신의 장독에 메주를 조심스레 넣고 장독에 들어찬 메주 위에 소금물을 부었다. 어린이 장금이들은 동요를 부르며 함께 전통장문화를 즐겼다. 2024년 장독분양사업은 4월 중 '장 가르기' 와 11월 중 '장독 비우기' 로 진행되며 완성된 전통 장은 참가자들에게 각각 된장 5kg, 간장 1L씩 나눠질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로터스월드 20주년…문화교류 한마당

4월 7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서
로터스월드, 설립 20주년 맞아
한 · 동남아문화 화합의 장 기획



아시아 불교국가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부처님 자비를 전하는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가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한국인과 동남아 출신 이주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함께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로터스월드는 오는 4월 7일 오후 3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로터스월드 설립 20주년 기념 '한-아세안 문화교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민들의 교류와 협력, 소통을 강화하고 같은 지구공동체 일원으로서 한마음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크게 공연과 전시로 진행된다. 서로 다른 두 문화권의 국민이 상대방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전통문화인 △태권도 시범 △국악(박애리 등) △풍물 공연을 비롯해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태국 국립극장 출신 뮤지션의 전통음악 공연 및 중앙국악관현악단 콜라보 △미얀마 출신 가수 완이화와 해피스타트 다문화합창단 공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시는 로터스월드가 동남아국가들과 함께 걸어온 20년의 시간을 입체적으로 다룬다.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진행한 국제개발협력활동 사진을 시간·공간·사업 분야로 구분해 배치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해 관람객들이 로터스월드의 발자취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한국인과 국내 거주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민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로서 연대감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02-725-4277 이민우 기자

법정 스님 14주기…주지 덕조 스님 취임

3월 6일, 서울 길상사서 추모법회
생전 영상 보며 사부대중 눈시울
덕조 스님 "은사 유지 이어갈 것"

맑고 향기로운 청빈한 삶을 몸소 실천했던 법정 스님의 원적 12주기 기일을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서울 길상사(주지 덕조 스님)는 3월 6일 경내에서 '법정 대종사 14주기 추모법회 및 주지 이취임식'를 봉행했다.〈사진〉 추모법회는 법정 스님의 마지막 당부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고자 했던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는 추모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또한 맏상좌인 덕조 스님의 주지 취임식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송광사 수좌 현묵 스님은 추모법문에서 법정 스님과의 추억담을 전하고 "스님은 간소하고 간결한 장례로 떠나시면서까지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서 "개인의 청정함으로 사회를 밝혔고 맑고 향기로운 울림을 줬다"고 말했다. 현묵 스님은 이날 주지로 취임하는 법정 스님의 맏상좌 덕조 스님을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스님은 덕조 스님에게 "사부대중, 큰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길상사가 더욱 맑고 향기로운, 교육과 수행의 실천 도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추모법회에서는 법정 스님 생전과 다비식 모습이 담긴 영상도 소개됐다. 스승의 모습에 자리에 함께한 사부대중은 눈시울을 붉히며 마음속에 어른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그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추모법회에 이어 길상사 주지 이취임식이 봉행됐다. 제10대 주지로 길상사를 이끌어갈 덕조 스님은 "늘 새롭게 시작할 때 마음으로 소임을 보겠다"면서 은사인 법정 스님의 유지를 이어 길상사를 맑고 향기로운 근본도량으로 이끌어 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법정 스님은 1956년 효봉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59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며 생명 중심 나눔의 삶을 설했던 스님은 맑고 향기로운 사회 구현활동을 통한 순수 시민운동을 주창했다. 2010년 3월 11일, 길상사에서 세수 78세, 법랍 55세로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인산家 업무협약

3월 5일, 생명나눔 문화확산 힘 모으기로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인 불교계 공익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체인 ㈜인산가(대표이사 김윤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명나눔 문화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3월 5일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국내 1위 죽염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인산가와 '국민 건강과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창립 3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협력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업 및 활동사항 홍보 △상호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에 관한 지원 및 협조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회사인 인산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활동을 함께 이어가자"고 말했다.

김윤세 인산가 대표이사는 "경영이념인 생명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주)인산家는 마늘과 인산죽염을 주원료로 한 마을죽염제품 및 전통 죽염장류 등을 개발해 한국인의 건강을 돕고 있는 자연 지향 건강기업이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인산가가 MOU를 맺고 생명나눔 문화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7대 관장에 지웅 스님

27년간 현장서 복지발전 진력

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제7대 관장으로 27년의 시간을 복지현장에서 근무하며 지역사회와 노인복지 발전에 진력해온 지웅 스님이 취임했다.〈사진〉



지웅 스님은 3월 4일 서울노인복지센터 TOP작은공연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더욱 따뜻하고 활기찬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센터가 어르신들에게만 소중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관장이신 희유 스님이 토대를 잘 만들어 주신 만큼 앞으로도 센터 발전에 대한 소임을 직원들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직원들을 격려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직원들을 위한 자기실현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웅 스님은 1998년 승가원강북그룹홈 사회재활교사를 시작으로 승가원장애아동생활시설 원장, 해남군장애인복지관 관장,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민우 기자



바이욘 불교사원 전경. 앙코르톰은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불교사원이다.



앙코르와트에서 광주 증심사 순례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따프롬 불교사원의 전경.



앙코르와트의 회랑.

‘불교+힌두’ 캄보디아 불교사원을 만나다

광주 증심사 캄보디아 불교 순례 현장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순례
불교도시 앙코르톰 등 답사해
관세음보살 새긴 바이욘 사원
백성 위해 관음보살 되고자한
자야바르만 7세의 원력 느껴져

캄보디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캄보디아라고 하면 한국인들은 십중팔구 ‘앙코르와트’ 유적을 떠올린다. 앙코르와트는 고대 동남아시아의 맹주였던 크메르 제국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불교와 힌두교가 혼재된 사원의 구조물들은 캄보디아만의 독특한 종교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 스님)는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크메르 제국의 문명을 찾아 불교문화 유적답사에 나섰다.

증심사는 매년 해설자와 함께하는 국내 불교유적 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불교유적 순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답사는 힌두교와 불교유적이 혼재된 캄보디아 씨엠립에 위치한 크레르 문명 초기유적과 불교유적, 앙코르와트를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답사에는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을 비롯해 신도 24명이 참여했다. 답사에 앞서 중현 스님은 “이번 답사는 예전처럼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 편하게 다른 문화의 힌두와 불교유적을 보는 일정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순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남아 호령했던 크메르 왕국

현재는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이지만, 캄보디아는 한때 동남아와 중국 남부까지 지배했던 제국이었다. 9~15세기 동남아시아에 존재한 크메르 왕국은 캄보디아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며, 인류사에 위대한 유산인 앙코르 유적을 비롯해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과 문화, 정치적 유산을 남기고 멸망했다.

특히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는 캄보디아 예술과 문학이 꽃 피우면서 엄청난 문화 발전을 이룩했고, 당대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대도시이기도 했다.

자료에 의하면 앙코르의 전성기 인구는 무려 70~90만명이었다. 동시대 런던의 인구는 7만명이었고, 로마는 3만명, 베이징의 인구가 70만명에서 120만명 사이였다고 하니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인구수를 가진 거대 도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불교의 도시 앙코르톰’

캄보디아는 현재 인구 중 97%가 불교를 신앙하는 불교국가로 불교는 캄보디아인에게 토착종교에 가깝다.

캄보디아가 불교를 숭앙했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 앙코르톰이다. 앙코르톰은 12세기 후반 자야바르만 7세 때 세운 성곽 도시로 크메르 제국의 마지막 수도이기도 하다. 순례단은 앙코르톰을 순례 셋째 날 찾았다.

한 변의 길이가 약 3㎞에 이르는 정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으며 높이 8m의 성벽과 너비 113m의 해자로 둘러싸여 있다. 앙코르톰을 둘러싼 4면의 성곽은 히말라야 산맥(우주를 둘러싼 벽)을 의미하며, 해자는 대해(우주의 바다)를 상징한다. 건립 당시에는 목조 건물도 있었으나 지금은 석조 건물만 남아 있다.

자야바르만 7세는 참파로부터 국토를 회복한 뒤 1181년 왕으로 등극한 후 국교를 불교로 바꾸었다. 그는 대승불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사업을 진행하고, 전국에 병원을 만들어 모든 계층에 개방했다.

앙코르톰을 대표하는 유적은 불교사원인 바이욘 사원이다. 중앙에 자리한 42m의 본전을 두 개의 회랑이 둘러싸고 있고 동쪽에는 참배로가 있다. 사원 안 곳곳에는 37개의 사면 관세음보살상이 미소를 짓고 있다. 본래는 54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크메르의 미소’라 불리는 온화한 표정이 인상적이다.

사면 관세음보살상은 자야바르만 7세를 표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학설에 따르면 적극적인 사회사업을 펼친 자야바르만 7세는 자기 자신을 대중불교의 보살 가운데 가장 자비로운 관세음보살과 일치시키려고 했고, 이를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형상화해 바이욘 사원에 새겼다.

바이욘 사원의 정중앙에는 불교의 수미산을 상징하는 중앙탑이 있고 1층 외부회랑과 2층 내부회랑 사이에는 16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곳은 불교 승려들이 거처한 곳으로 추정된다.

자야바르만 7세가 세운 사원 중에는 따 프롬 사원도 유명하다. 따 프롬 사원은 자야바르만 7세가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건립한 것으로 붓다의 어머니인 마야부인과 자신의 어머니를 같게 한 신상을 조성했다. 비문 기록에 의하면 따 프롬 사원은 400명의 남자, 18명의 고승, 2740명의 승려, 2232명의 수련자 등 1만2640명이 거주했을 정도로 큰 사원이었다.

현재는 커다란 나무뿌리에 침식당해 유적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반대로 무화과, 보리수 등의 뿌리가 벽과 지붕 위에 내려앉은 모습은 자연의 위대함과 더불어 일체가 무상함을 가르쳐 준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는 왕도를 뜻하는 ‘앙코르’와 사원을 뜻하는 ‘와트’가 합쳐진 이름이다. 앙코르와트는 수리야바르만 2세가 비슈누 신에게 봉헌하기 위해 추진됐고, 그가 죽은 후에도 무려 37년의 기간 동안 건립됐다. 이때까지는 힌두교사원이었으나 이후에는 불교사원으로 대체됐다. 그렇지만, 적지 않는 부조와 구조물들은 힌두교 문화를 담아내고 있다.

앙코르와트는 동서 1.5㎞, 남북 1.3㎞에 이르는 광대한 피라미드형 사원으로, 중앙에 있는 신전은 세 겹의 회랑이 감싸고 있고, 회랑 바깥쪽으로 주벽을 만들고 외부에 해자를 만든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다.

앙코르와트의 회랑은 중앙 탑을 기준으로 3개 층에 해당하는 3개의 회랑이 있다. 각 회랑의 부조는 수리야바르만 2세의 영광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1층에 해당하는 제3회랑의 경우 북쪽 회랑은 신들을 묘사했고 남쪽 회랑은 왕과 왕의 영역을 조각했다. 2층에 해당하는 제2회랑에는 1500명이 넘는 압사라와 여신들이 조각됐다.

가장 높은 3층은 제1회랑과 성소인 중앙신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모두 12개이다. 매우 가파르고 위험해 현재는 안전한 임시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밖에도 순례단은 크메르 왕국의 초기 유적지인 바콩(Bakong), 롤레이(Lolei), 프레아코(Preah Ko)로 이뤄진 룰루오스 유적군을 답사했다. 씨엠립 시내 남동쪽에 위치한 3개의 사원은 앙코르 시대 초기인 9세기 후반에 건설된 크메르 예술의 초기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순례단은 캄보디아인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톤레샵 호수와 수상촌을 둘러봤으며, 독재자 폴 포트가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한 ‘킬링필드’의 유골을 모신 사원도 참배하고 그들의 넋을 기렸다.

순례에 참여한 최순자 불자는 “힘든 여정이었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즐거움이었다. 특히 유물의 보존을 통해 후손에게 남기는 것은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현 스님은 “불교와 힌두교가 혼재된 캄보디아만의 불교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해외순례 신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 1기 배출

50명 입학해 49명 수료…입소문 타고 교육 인기

1기 수료식 및 보살계 수계식
흥교 대종사 참석, 대중 격려
'붓다볼 명상 지도자' 호응 커
2기 교육과정도 빠르게 마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스님)이 2월 29일 대학 내 대강의실에서 '승려교육원 1기 수료식 및 보살계 수계식'을 거행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승려의 위의(威儀)와 자질, 능력 함양을 목표로 지난해 3월 8일 승려교육원을 정식 개원했고 이번 수료는 첫 결실이다. 특히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포교방안을 고심하는 스님들을 위해 '붓다볼 명상지도사' 과정을 개설해 높은 인기로 마무리됐다. 붓다볼 명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명상법을 안내받은 스님들이 직접 입소문을 냈고, 전국의 스님들이 발걸음을 옮겨 강의를 찾았다. 이번 강좌는 개설 후 바로 선착순 마감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포교를 위한 스님들의 자비심에 더해 실질적인 방안을 안내한 것이 인기의 요인으로 파악된다.

이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총 50명이 입학해 49명이 졸업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이를 기념하며 더욱 정진해 인천의 스승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는 보살계를 봉행하면서 의미를 더했다.


흥교 대종사가 승려교육원 1기 수료식 · 보살계 수계식에서 연비하는 모습.

수료식은 △개식 △삼귀의 및 반야심경 △고불문 △축가 △내빈소개 △학교 및 승려교육원 소개 △격려사 △축사 △법어 △수어 축가 △공지사항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서해 흥교 대종사, 전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 학장 범혜 스님, 승려교육원 운영위원장 자인 스님, 최금식 후원회장, 김경숙 싱잉볼치유의소리 대표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흥교 대종사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라 할 정도로 중요하고 큰 영향을 끼친다"며 "마음이 평화로우면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평화로워진다.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영위원장 자인 스님은 "입학한 스님 대부분이 수료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교수진스님들과 전문가들의 노력에 감사하다. 학장스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오늘 수료를 시작으로 도반스님들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정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은 "오늘 이 자리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불교의 출발은 삶에 대한 물음, 즉 의문으로 시작한다. 모든 종교를 비교해 의문으로 시작한 종교는 불교가 유일하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의 해답을 불교가 가지고 있다. 지금 공부하는 과정들이 그 해답을 아는 성불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축사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이날 후원으로 승보의 발전을 기원한 최금식 후원회장(선보공업 주식회사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금식 후원회장은 "이 일에 동참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인 것 같고 자랑스럽다"며 "승려교육원을 설립해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은 앞으로 2기 붓다볼 명상지도사 1급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수강생 정원은 30명이며, 상반기 강의는 13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범어사 스님들은 독립운동 주역"

범어사 3·1운동 105주년 기념식…"소중함 잊지 말자"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3월 1일 현충시설 유공비 앞에서 '3·1운동 105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사진〉 기념식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이윤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과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스님들과 독립투사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주독립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다"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희 신도회장은 "범어사 스님들과 학생들이 주도한 만세운동은 부산 독립운동의 기폭제였다"며 "3·1운동 105주년을 맞아 소중함을 되새기는 마음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범어사 3·1운동 유공비는 1919년 부산 만세운동의 주역인 범어사와 지방학림, 명정학교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환경지킴이로 거듭난 복지관들

불국토 산하 8개 복지기관 '녹색복지시설' 협약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범산 스님) 산하 복지기관 8곳이 부산불교환경연대와 협약을 맺고 환경지킴이가 될 것을 서원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는 3월 6일 부민노인복지관에서 '녹색복지기관 실천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협약기관은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수영구자원봉사센터, 부민노인복지관, 수영구노인복지관, 광안노인복지관, 컴넷하우스, 영주암어린이집이다.

안도 스님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모르는 인간의 무지함이 안타깝다"며 "모든 만물은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환경오염을 자신의 일이라 여기고 실천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교종 창종 이념 선교겸수로 정진"

한국불교선교종 사천왕사서 혜만 대종사 증명 법계품수 대종사 6명 탄생, 정진 다짐



선교종 본산인 사천왕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법계품수식에서 종정 혜만 대종사와 스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총무원장 대풍 스님)이 3월 6일 선교종 본산 사천왕사에서 법계 품수식을 봉행했다. 선교종 제7대 종정 경보 혜만 대종사의 증명으로 진행된 이번 품수식에서는 대종사 6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종사, 종덕, 대덕, 중덕을 새롭게 품수한 스님들도 함께 불퇴전의 정진으로 더욱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품수식은 타종으로 시작해 개회 선언 후 종정스님의 등단에 이어 삼배 정례하고 법을 청했다. 혜만 대종사는 "밝은 달은 저물어 떨어져도 하늘을 떠나는 법이 없고 넓은 마음에는 천당과 지옥에 차별이 없도다. 부처님의 참된 지혜를 깨달음의 근본으로 삼으면 인연 따라 곳곳마다 광명이 차고 넘친다"고 설법했다. 이어 "오늘 법계품수식에 동참한 모든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께 더욱 나아가는 정진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대풍 스님은 "법계라는 것은 승가의 위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품수자들은 종단의 기둥과 같은 분들"이라며 "살아 있는 부처님, 생불이라 할 수 있는 종정 혜만 대종사님을 위시해서 오늘 종사, 종덕, 대덕, 중덕을 새롭게 품수한 스님들은 종단의 발전을 위해 더욱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진행되는 법계 품수 의식은 법계고시위원회에서 준비한 절차에 따라 여법히 마련됐고, 고시 과정을 모두 마치고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법계를 받은 스님들을 대표해 종덕 성우 스님은 고불문을 낭독하며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성우 스님은 "엄중히 치러진 법계고시를 통해 종단의 위계와 존경의 대상이 되는 대종사를 비롯한 종사 이하 종덕, 대덕, 중덕의 품계가 오늘 내려졌다"며 "이 법계에 따라 위로는 대덕 큰스님을 존경하고, 아래로는 후학스님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교종 창종 이념인 선교겸수를 잊지 않고, 치우침 없는 스승의 면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기장 동림사, '아미타여래좌상' 점안

지난해 부산시 문화재 지정



기장 동림사(주지 성타 스님)가 3월 3일 경내 대웅전에서 아미타여래좌상 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백양사 전 방장 지선 스님, 주지 성타 스님, 정종복 기장군수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성타 스님은 "인연이 되어 동림사에 아미타여래본존불을 모시게 됐다"며 "아미타 도량으로 지역의 발전과 불국토를 기원하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동림사 목조여래좌상은 1680년에서 1700년대에 조각승 법종 스님이 조성한 불상으로 추정된다. 법종 스님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해 묘련사와 양산 법천사 보살상 2구가 이미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고려해 지난해 부산시는 동림사 아미타여래좌상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전품목 10~30%
승복·가방 50% / 가구·병풍 30% 할인
※ 제품 소진시 까지 ※ 일부 품목 제외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등 설치 할 인 — 설치 스카이 3월 30일까지 할인 / 다양한 연잎 등살 등작업 3월 말까지 행사 중
사월초파일 제품 할인 —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84,000원
입춘대길 수제 인쇄부적 할인 — 수제부적 50장 20,000원 / 국산 전기선 LED전구 100개 이상 1,3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2024 초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팝초 20개, 노란색 최상급 20개 소진시까지 ····· 65,000원
5일초 24개 ····· 70,000원
3일초 40개 ····· 70,000원
1일초 90개 ····· 80,000원
15일초 12개 ····· 100,000원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0,000원
15일 ····· 7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광주·전남 불교대학 '붐'…지역 포교 활기

백양사, 3월 5일 불교대학 개교식
32명 입학해…장성 지역포교 나서
증심사, '빛고을불교아카데미' 개강
미륵사도 아카데미 설립, 교육 시작
'빛고을불교대학' 3기 입학식 열려



백양사가 장성 상무대 명상원에 '백양사불교대학'을 개원했다. 개원식 참석대중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전남지역 불교계가 불교 교육 열기로 뜨겁다. 백양사는 처음으로 불교대학을 개교해 장성지역 포교에 나섰고, 사찰음식으로 잘 알려진 광주 미륵사도 첫 불교아카데미를 열어 교육포교에 뛰어들었다. 광주 증심사와 화엄사 빛고을포교원도 교육을 통한 불교 홍포에 매진하고 있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3월 5일 장성 상무대 명상원에 '백양사불교대학'을 개원하고 활발한 지역포교 활동을 다짐했다.

개원식에는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총무국장 청마 스님, 교무국장 정궁 스님, 재무국장 선묵 스님 등 백양사 소임자스님을 비롯해 김광태 신도회장, 이원혁 대령(장성 무각사 금강회장), 김한종 장성군수와 심재민 대령(상무대근무지원단장) 등 신입생이 참여해 개원과 입학을 축하했다.

무공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여러분과 백양사 불교대학과의 인연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인연이다. 이 귀한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부처님을 닮아가는 수행자로서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이원혁 대령을 포함한 신입생 32명에게 입학증서와 선물이 전달됐다. 입학생들은 발원문을 통해 "불교대학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욱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보리도를 이루며,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살아가도록 서원한다"고 다짐했다.

백양사불교대학은 1년 교과과정이다. 부처님 생애, 불교개설, 명상실습, 천수경 강의, 반야심경, 교양 부분 등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 7시에 2시간씩, 총 32주간 강의가 진행된다. 성지순례, 템플스테이, 특강, 봉사활동 등 불교를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는 3월 5일 자비신행회에서 '2024빛고을불교아카데미' 상반기 강좌를 시작했다.

총 15회로 구성된 이번 강좌는 일반시민과 초심 불자를 위한 불교학개론 프로그램으로 부처님 일생, 불교문화, 불교철학과 사상, 불교역사, 불교와 윤리, 불교와 현대사회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진행한다.

주지 중현 스님은 "무등산에 위치한 증심사는 교육강좌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심에서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이 강좌를 통해 누구나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강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무등산 미륵사(주지 혜법 스님)는 '수자타불교아카데미' 개원하고 본격적인 불교 교육사업을 시작했다. 3월 5일 수자타 문화센터교육관에서 열린 개원식과 함께 혜법 스님을 비롯한 강사진과 50명의 제1기 신입생이 참여해 첫 강의를 진행했다.

주지 혜법 스님은 "많은 인연 공덕으로 무등산 자락에 미륵사와 수자타라는 쉼과 힐링의 공간을 이루고,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알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깨달음을 이루고자 시작하게 되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광주 광산지역 불교대학인 '빛고을불교대학'도 제3기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 스님)이 운영하는 빛고을불교대학은 3월 5일 대웅전에서 불교대학 3기 35명, 경전반 30명과 이사장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 학장 연성 스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강식을 열었다.

이사장 덕문 스님은 '전법 합시다'라는 법문을 통해 "불교대학에서 배운 가르침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좋은 씨앗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부처님을 닮아가는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빛고을불교대학은 2022년 개교 이래 매년 5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울주 보덕사 삼층 금강탑 점안법회 봉행

부처님 치아사리 등 사리 5과 봉안
지역사회에 발전기금, 물품 전달도


삼층 금강탑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울산 보덕사(주지 효암 스님)는 3월 1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석조 삼층 금강탑 조성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전통의식에 따라 시작된 점안법회는 울산불교방송 김영미 아나운서의 사회로 삼층 금강탑 제막식, 육법공양, 진도북춤, 명종5타,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 내빈 소개 및 신도회 소개, 백미 및 기금전달식, 주지스님 인사, 봉행사, 축사, 축시 낭독, 축가, 법어, 공지사항 안내, 회향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덕사 주지 효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고 바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일체 중생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끌고자 원을 세우고 삼층 금강탑을 조성하게 됐다"며 "보덕사를 지역 대표 사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효암 스님은 이날 지역발전을 위해 울주군 상북면 청년회에 발전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상북면사무소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100포도 후원했다.

김남규 신도회장은 봉행사에서 "보덕사 불자 여러분들의 지극한 정성과 불심 덕분에 탑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될 수 있었다"며 "동참하신 모든 분에게 불보살의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금강탑 조성 불사의 공덕은 무엇보다 수승하다. 오늘은 그 공덕을 회향하는 자리"라며 "오늘 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이 행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맑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보덕사 삼층 금강탑은 익산 황등석으로 조성됐다, 탑신 1층 사방불은 동쪽 약사여래불, 남쪽 석가모니불, 서쪽 아미타불, 북쪽 비로자나불이 새겨졌다. 탑신부 2층의 둥근 홈에는 부처님 혈사리 1과, 흑사리 2과, 치아사리 1과, 태고종 13세 종정을 지낸 덕암 스님의 진신사리 1과를 봉안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안수빈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신임단장 취임

"화합·정진으로 나아갈 것"
부단장 등 임원진에 임명장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제12대 김용수 단장과 신임 13대 안수빈 단장의 이취임식이 3월 3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법당에서 봉행됐다.

강일수 수석부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이취임식에는 17교구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금산사 포교국장 응묵 스님,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주지 제환 스님,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남궁선 전 금산사 신도회장, 이정희 금산사 신도회 부회장, 하유호 108산사 순례단장 등 신행단체장들과 포교사들이 참석했다.

김용수 12대 단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임기 동안 지역스님들과 포교사들의 성원에 힘입어 단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며 "우리 전북지역단 포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삼보를 수호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앞장 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수빈 신임단장은 "전북지역단 포교사들과 함께 화합과 정진, 봉사와 전법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서로의 다름을 탓하지 않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포교와 수행이 다르지 않다는 신념으로 전법의 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수빈 신임단장은 13대 강일수 수석부단장과 5개 총괄팀장에 대한 임명장을 전달했다.

또 이임하는 김용수 단장에게는 공로패와 기념 포교사 뱃지를 전달하며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법어를 통해 "승가의 가장 큰 덕목은 화합이다. 구성원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해소하고 이해하면서 화합하는 단체가 될 때, 그 단체가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산사 포교국장 응묵 스님은 축사에서 "전북지역 최초의 여성단장 취임을 축하한다"며 "포교사로서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불교 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연, 지역불교 활성화 나섰다

3월 4일 후원물품 전달식
6일 금강경 독송 기도 입재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 관음사 주지)는 3월 4일 광주 서구청(청장 김이강)을 방문해 '2024 돌봄 이웃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서는 관음사 신도들이 마련한 백미 2000kg와 법륜사가 후원한 100만원이 전달됐다. 후원물품은 서구청을 통해 돌봄 이웃과 저소득층 세대에 전해질 예정이다.

3월 6일에는 광주불교연합회 회원사찰스님과 신도 등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광주불교 화합과 중흥을 위한 금강경 독송 정진법회' 입재식과 광주경찰청 경승 위촉식도 이어졌다.

금강경 독송 기도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관음사 3층 대법당에서 금강경 원문을 3독한다. 기도는 2025년 2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현재 100여 명이 동참하고 있으며, 월 1만원(1년 10만원)인 동참금은 전액 광주불교회관 건립불사에 사용된다.

소운 스님은 "광주지역의 불교 중흥과 화합을 위해 지역스님들과 불자들의 마음을 모으고자 금강경 독송 정진법회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기도를 통해 화합과 광주불교회관 건립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승 위촉식에서는 경승실장에 소운 스님이 경승에 도제 스님이 신규로 위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림사 동진보살·신중탱화 점안법회

3월 3일 경내 명부전서



진해 송림사(주지 지암 스님·진해사암연합회장)는 3월 3일 경내 명부전에서 동진보살, 신중탱화 39위, 사천왕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지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크고 작은 불사에 많은 불자님이 동참해서 지금의 송림사 도량이 사격을 갖췄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이어 "벽에 틈이 생기면 비나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군이 들어오거나 몸이 병들게 된다"며 "뛰어난 신심과 원력으로 업을 소멸하고 복을 짓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증명법사를 맡은 불곡사 도홍 스님은 법어에서 "송림사 불사가 이렇게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었던 것은 주지스님의 위신력과 불자들의 원력이 모여 이룰 수 있었다"며 "'시종일여'의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 정진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영가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천혼무 공연과 정토회의 합동천도재가 이어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국불교조계종 갑진년 신년하례 법회

3월 5일 밀양 삼봉사서



사)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장 녹원 스님)이 3월 5일 밀양 삼봉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총무원장 녹원 스님을 비롯해 덕송 스님, 성광 스님, 무안 스님, 상운 스님, 무봉 스님, 승진 스님, 정음 스님, 정오 스님, 운봉 스님, 혜명 스님 등 종단 소임자 스님들과 윤기순 법인대표, 이재연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녹원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한국불교조계종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종도들이 힘을 합쳐 중지를 모으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윤기순 대표이사는 "우리 모두 부처님의 정진력과 지혜의 덕화를 호지하여 무량 한 등불로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다함께 정진하자"고 말했다.

올해로 창종 30주년을 맞은 한국불교조계종은 수행 가풍과 승풍진작, 지역별 교구 중심제 강화, 대중공사에 기초한 종단쇄신, 종무행정시스템 개선 및 협회 재정 안정화, 승려복지 시스템 확대 및 내실화, 포교정책의 다각화, 종단의 사회적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능인종 시무식·영남범음범패보존회 개강

6개월 과정…초급·중급·상급반



대한불교능인종(총무원장 수암 스님)이 2월 28일 김해 화장사 진영포교당에서 갑진년 시무식 및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15기 개강식을 진행했다.

총무원장 수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범음범패는 불교문화의 꽃이자 불교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며 "단기간 교육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 불교 전통문화인 범음범패를 후대에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강한 영남범음범패 15기는 6개월 과정이다. 초급반은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등 예경의식을, 중급반은 사시불공, 49재 및 천도재 의식, 시식, 사물 다루는 법을 공부하게 된다. 또 상급반은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복청게, 오공양 소리를 전문강사스님들의 지도로 수련하게 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印, 국제로드쇼로 불교유적지 홍보

캄보디아 · 베트남서 개최 예정
문화유산 구성된 플랫폼 제공
관광 숙박 잠재력 발휘 기대
지역사회 참여 유도 목적도

박영빈 객원기자

고대 불교문화유산의 보고로 불리는 북인도 비하르주가 불교의 역사가 깊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최초로 국제 로드쇼를 개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 인도의 '피오니얼' 등 현지언론들은 이번 로드쇼가 불교가 전해진 해외 각국과 공통된 영적인 뿌리를 재확인하고 성지를 방문하려는 순례자들의 흐름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북인도 비하르주는 성도성지인 부다가야를 비롯해, 고대 왕사성 유적인 라즈기르, 유마경의 무대인 바이샬리와 날란다 불교대학과 같은 풍부한 불교 유적지와 유물들이 산재되어 있다. 비하르 주정부 관광국 국장 겸 수석비서인 아바이 쿠마르 싱은 "비하르주의 불교유산들은 인도를 다시금 불교세계의 중심에 올리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비하르주는 전 세계의 불교도들과 고대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둔 관광객들이 가진 거대한 관광 잠재력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비하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불교 성지들을 중심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인도 비하르주에 있는 성도성지 부다가야.
사진출처=위키피디아

현재 개최 준비 중인 국제 로드쇼는 비하르주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유산들을 한눈에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이 성지순례를 시작으로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와 자이나교 등 비하르 지역의 영적유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비하르주는 부다가야, 라즈기르, 날란다, 파트나, 바이샬리, 라우리야 등의 성지를 일주하는 성지순례 코스를 개발하여 홍보에 나선 바 있다.

인도 여행사 협회 부회장 라즈니쉬 카이스타는 "해외에서 로드쇼가 진행될 때마다 항상 인도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의 수가 증가했다"면서 "인도가 가진 불교유산은 비하르주 외에도 많은 주에 산재했다. 만약 이번 로드쇼를 시작으로 다른 주들이 더 합류하여 불교유산을 주제로 한 로드쇼가 진행된다면 관광 및 숙박 부문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현지 소식통들은 로드쇼에 대해 "계획은 거의 확정된 상태로 핵심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로드쇼는 장기적으로는 불교문화유산들에 대한 재평가와 발굴, 복원과 같은 정책과도 연계되어 지역사회의 참여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쿠마르 싱 국장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현지의 불교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고, 관련된 정책과 개발계획의 의사결정, 문화보존, 관광 관련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밝혔다. 낙후된 지역의 개발과 현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 층의 대도시 이주 억제와 타지역 인재영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日 사찰에선 프로레슬링 경기가 열린다

현역 레슬러 부주지 아이디어
사찰 신도에 흥밋거리 제공
범죄 예방 주의사항 설명도

경내에 특설된 링 위에서 프로레슬러들의 격렬한 기술들이 난무한다. 일본 사이타마현의 코시가야시(越谷市)에 소재한 사찰 안코쿠지(安國寺)에서 열린 이벤트의 모습이다. 3월 3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NHK 뉴스' 등은 프로레슬링과 불교를 접목한 특별한 행사에 대해 소개했다.

3월 2일 안코쿠지 경내 주차장에 세워진 링에서 진행된 프로레슬링 경기. 경기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선수는 부주지 스님인 시즈쿠 아키 스님이다. 현역 여성프로레슬러로 활동 중인 시즈쿠 스님은 "매년 열리는 사찰의 행사에 점점 사람이 줄어드는 것에서 흥밋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이 프로레슬링 이벤트"라고 행사의 계기를 전했다.

스님은 중학교 때 우연히 TV에서 본 여성 프로레슬링 중계방송을 보고서 프로레슬러의 길을 가게 됐다고 전했다. "화려한 복장, 상대를 제압하는 압도적인 기술, 관객들을 즐겁게 하는 경기방식 등이 모두 매력적이었다. 사춘기의 우울한 기분이 밝아지고 많은 용기를 받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마추어 레슬링으로 시작하여 대학 졸업시엔 전일본 학생 레슬링 선수권 대회 67kg급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프로레슬링 이벤트가 열린 안코쿠지 전경.
사진출처=NHK방송화면 캡쳐

안코쿠지 경내에서 프로레슬링 경기 이벤트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11년의 일이다. 매년 4회 정도 진행돼왔는데, 지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지되었다가 5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경기는 2인 1조로 싸우는 '태그 매치' 등 3경기가 열렸다. 150여 명의 관객들이 찾은 가운데 레슬러들은 로프 상단에서 상대를 향해 뛰어내리는 등 박력 있는 기술을 잇달아 선보였다. 시즈쿠 스님도 화려한 프로레슬러 복장은 물론, 승복을 입고서 경기에 임했다.

특히 이번 경기 이벤트에는 고시가야 경찰소와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이나 호신술을 테마로 한 프로레슬링 단막극도 공연돼 더욱 볼거리를 더했다. 레슬러들이 각각 범인과 피해자 역을 맡아 연기를 하고 끝내 멋진 레슬링 기술로 범인을 제압하는 스토리에 경찰측 강사가 범죄의 예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사이타마시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벤트에 참가한 관객은 "조용한 이미지의 절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격렬한 난투가 일어나는 모습이 신선하고 재밌다"며 이벤트에 또 참여하고 싶다며 소감을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캄보디아 대종정 뗍 봉 스님 입적

2월 26일, 법랍 72세 · 세수 93세
캄보디아 불교 교단 최고 지도자



캄보디아 대종정 뗍 봉 스님〈사진〉이 2월 21일(현지시간) 세수 93세, 법랍 72세로 원적에 들었다. 지난 2월 29일 '폭스 뉴스'를 비롯한 여러 주요 외신들은 캄보디아 문화종교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스님의 입적사실을 보도했다.

캄보디아 문화종교부는 "캄보디아 불교계의 최고 원로이자 대종정인 뗍 봉 스님이 2월 26일 오후 5시 40분(현시시각)에 세수 93세로 당신의 주석사찰인 왓 운날롬 사원에서 입적했다"고 발표했다.

뗍 봉 스님은 캄보디아 불교 최대 종단인 마하니까야 종단과 담마윳 종단의 공동 종정이다. 전 인구의 약 97%가 불교도인 캄보디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존경받던 스님이었다. 스님의 입적소식이 공식발표 된 후 캄보디아의 관공사와 거리는 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는 조기를 게양했다.

1932년 시엠립에서 태어난 뗍 봉 스님은 1952년 씨엠립의 왓 리치보 사원에서 출가 생활을 시작했으나 크메르 루주 시대에 강제로 환속을 당하고 노동교화소 생활을 버텨냈다. 이후 크메르 루즈 정권이 무너진 1979년 베트남 승가의 도움으로 7명의 스님들과 다시 구족계를 받았다. 그 후 포교와 승단 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특히 뗍 봉 스님은 자신과 같이 강제 환속 당한 스님들을 찾아내고 다시 구족계를 받게 함으로써 캄보디아 불교의 승가를 재정립한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1991년 캄보디아 불교계가 마하니까야 종단과 담마윳 종단으로 분리되면서 뗍 봉 스님이 마하니까야 종단의 종정에 취임했다. 2006년 불교계의 추대로 두 종단을 모두 이끄는 대종정의 자리에 취임하면서 교단의 지도자라는 '상가라자'의 칭호를 받았다.

뗍 봉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들은 캄보디아 전 총리 훈 센은 "아내와 나는 대종정 뗍 봉 스님의 입적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뗍 봉 스님은 일생 동안 국가, 종교, 왕정의 위신을 드높이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1979년 1월 7일 크메르 루즈의 전복부터 입적까지 캄보디아 왕국의 불교중흥을 위해 불퇴전의 모습으로 앞장섰다"고 스님의 입적을 추모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하와이 혼간지 사원, 무료 대중공양 대기록 달성

누적 7만5000식 기부…부처님 자비 실천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일본 정토진종 호노카아 혼간지 사원에서 무료 대중공양 대기록을 달성해 화제다.

지난 2월 29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하와이의 일본불교사찰 호노카아 혼간지 사원의 누적 7만5000식 무료 대중공양 대기록 달성 소식을 전했다.

2월 16일 하와이에 위치한 일본 정토진종 호노카아 혼간지 사원은 7만5000번째 무료 대중공양 배식을 기념했다. 호노카아 혼간지 사원 평화위원회는 "무료 대중공양은 종교, 민족성, 사회적 지위, 경제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면서 "하와이 섬의 작은 마을인 호노카아 주민을 위해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지난 5년간 매주 4~500명에게 무료 공양을 제공했다. 공양 봉사를 통해 봉사자들의 마음에 보람과 가피가 피어난다"고 말했다.

7만5000번째 공양을 받은 사람은 호노카아 주민으로 자원봉사자와 미치 로타스 호노카아 시장의 환호를 받았다. 그는 "자원봉사자의 노고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로 호노카아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혼간지 사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호노카아 지역 주민들이 무료 대중공양 봉사에 참여해 재료를 손질하고 있다. 사진출처=빅아일랜드비디오뉴스

자원봉사자 니콜라스 뉴랜드(17)는 "대중공양 봉사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었으며 마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매우 보람찼다"고 전했다.

호노카아 혼간지 사원의 오쿠무라 의장은 "지역 사업체, 농부, 농산물 제공자, 요리사, 식당 종업원 등 각계각층에서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 지난 5년간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송광사 근현대 고승 유묵을 만나다

송광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개최
기증받은 지선스님 유묵 등 전시
상설전 개편…내년 2월까지 진행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송광사의 근현대 고승들의 유묵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송광사성보박물관(관장 고경 스님)이 4월 2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기증 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경주 보문선원 선원장 대허 스님과 천안 광덕사 안양암 주지 성탁 스님이 기증한 정계 지선 스님의 유묵 및 관련 자료와 송광사 선덕 천동 지진 스님이 기증한 근현대 고승 유묵과 유명 동양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지선 스님(1912~1988)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한의사로 활동하다가 27세에 만공 스님(1871~1946)의 수제자인 용음 스님(1887~1951)에게 출가했다. 지선 스님은 전형적인 구양순의 해서체를 배우고 익혀 스님만의 '지선체'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덕사 강원 강주로 주석하면서 인근 사찰과 전국 사찰의 주련, 편액 등에 글씨를 남겼다. 한의사였던 지선 스님은 전국에서 찾아온 아픈 스님들을 약으로 치유했으며 이런 스님 덕분에 당시 한약을 달이고 약재 써는 일이 광덕사 스님들의 일상이었다고 전한다.

1947년 태어난 천동 지진 스님은 1961년 대구 동화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1년 사미계를 받고, 1969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율사로 비구계를, 1970년에는 보살계를 받았다. 1972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다. 1969년 해인총림에서 하안거를 시작으로 여러 선원에서 수행정진 했다. 출가 이후 밀양 표충사와 통영 미래사 등에서 효봉 스님과 구산 스님을 모셨으며, 송광사에서는 원주, 교무 등 소임을 맡기도 했다. 지금은 송광사 선원 선덕으로 정진하고 있다.



지진 스님 기증 구하 스님 作 '관세음보살도'



대허 스님 기증 지선 스님 유묵 '불심'

지진 스님은 2020~2022년에 3번에 걸쳐 소장하던 근현대 스님들과 유명 작가들의 작품 100여 점을 송광사성보박물관에 기증했다. 기증 작품 중에는 구하(九河, 1872~1965)·경봉(鏡峰, 1892~1982)·구산(九山, 1909~1983)·월하(月下, 1915~2003)·일타(日陀, 1929~1999)·일각(一覺, 1924~1996)·석주(昔珠, 1909~2004)·중광(重光, 1935~2002)·고산(杲山, 1933~2021) 스님 등의 그림과 유묵이 있다. 또 서화가 이명우(1923~2005)·구철우(1904~1989)·박기돈(1873~1948)·이도희(1906~1988)·허백련(1891~1977) 등 근현대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있다. 이외에도 1960~1970년대에 활영한 해인사, 미래사, 표충사 등의 생활상이 담긴 사진 자료도 함께 기증했다.

한편 송광사성보박물관은 '송광사의 불화(佛畫)'를 주제로 상설전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전시는 송광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불화 가운데 보물 영산전 후불도를 비롯해 약사전 약사불도, 경내 각 전각에 봉안됐던 후불도, 신중도, 독성도, 일섭 스님의 불화초와 석정 스님이 기증한 불화초 등이 전시된다. 또 보물 영산전 팔상도 가운데 쌍림열반도와 열반도 불화초가 함께 전시돼 조선시대 불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풍암영각의 고승 진영과 여러 전각과 암자에 봉안됐던 신중도를 한데 모아 19세기 송광사 신중도의 화풍을 비교할 수 있다. 여기에 여러 종류의 경전 변상도와 '권수정업왕생첩경도' 목판을 전시, 불교 판화의 멋과 정교함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2월 13일부터 시작한 이번 상설전은 2025년 2월 16일까지 약 1년간 관람할 수 있다. 송광사성보박물관장 고경 스님은 "그동안 잘 공개되지 않았던 불화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송광사 불화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국·고려 고승 비문 이체자 '한눈에'

국립문화재연구원 '이체자 자전' 발간

고대·고려 고승 비문 63건
이체자 3천자 정리 사전화

'이체자'는 한자에서 자형이 다르지만 같은 글자로 취급되는 글자들을 말한다. 즉, 형음의(形音意)의 세 요소 중에서 형(形)만 다르고 나머지 요소가 같은 한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일(一)'을 '일(弌)'로 쓰는 것이다. 같은 한자이면서 형태가 다르다보니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오래된 고서나 고승의 비문에서는 더 많은 이체자들이 확인된다.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는 한국 고승 비문들에 나타난 이체자들을 사전 형태로 집대성한 〈한국 고승 비문 이체자 자전 고대·고려편〉을 최근 발간했다.

고승 비문은 승려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생의 행력과 제자. 문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고승의 비문 내용은 당시 불교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특히 왕실의 명에 의해 세워진 고승 비문들은 당대 최고의 문장과 글씨로 이뤄져 문학, 금석학, 불교사, 서예사적 가치가 높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원은 2020년부터 한국 전역의 금석문 조사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탁본·수집된 석비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해왔다. 그 중 이체자를 정리해서 사전화해달라는 요구들이 이어졌고, 당대 최고 명필과 문인들이 썼던 고승 비문에 나타난 이체자를 정리키로 했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 고승 비문 이체자 자전〉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조성된 고승 비문 63건에 있는 이체자 3000자와 이체자의 비문별 서체 탁본 이미지 7000여 건을 정리해 엮은 것이다. 특히 이번 자전은 한 가지 한자의 변용을 비문별, 시대별로 파악할 수 있는 단초여서 서예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수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은 "고승 비문에는 같은 글자인데 형체를 다르게 쓴 이체자가 많다"면서 "형체가 복잡한 한자는 필획의 일부를 생략하고 일부만 쓰기도 했고, 일부를 간단한 자형으로 대체하기도 했으며, 반복되는 부분을 기호화하면서 약자, 속자, 별자 등의 이체자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체자 서체 자전에는 현재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체자들도 수록돼 있지만 겨우 한두 획의 차이가 있을 뿐 대표자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거나 혹은 서체적 측면에서 미세한 차이만 있어 굳이 자전을 찾을 필요가 없는 글자들도 모두 수록했다. 이 자전의 이용자 중에는 글자의 형체와 글씨의 서체가 조금만 달라도 어려워하는 초학자도 있기 때문"이라며 "한문에 대한 초학자를 비롯해서 역사학과 서예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이 자전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중앙博, 문화유산 관리자 기본교육

4월 8~15일, '불교회화' 주제
박은경 교수 등 온라인 강연
3월 18~21일 선착순 120명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이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기본교육은 문화유산 다량소장처의 사찰스님 및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사들이 성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을 함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불교회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4월 8~15일 7일간 온라인에서 열린다. 각 분야에 정통한 교수를 초빙, 강의의 전문성을 높였다. 강의는 △한국 불교회화의 이해:고려불화(박은경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사경변상도의 특징과 아름다움(박도화 한국전통문화대 초빙교수) △조선시대의 승려 장인(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장) △근대불교의 특징과 이해 (최엽 동국대 미술학부 대우교수) △한국 부화의 재료와 제작기법(박지선 前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성광사 성보박물관의 역사와 성보(유철호 송광사 성보박물관 학예사)로 진행된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려시대부터 조선, 근대에 이르는 한국 불교회화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살핌으로써 시대별 불화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불화가 담고 있는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더불어 불화 재료와 제작기법, 보존처리 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불교회화를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18~21일 선착순 120명 모집하며 전자우편과 F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승려연수교육 인정과정으로, 수강 완료시 교육원 연수교육 30점을 인증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www.museum.buddhism.or.kr) 참조. 02-2011-1987

임은호 기자

한국미술사硏, 박물관대학 미술사 강좌

4월 1일~6월 8일, 매주 월요일
선종 성행 · 통일신라 미술 주제

불교미술과 문화재를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2024년 1학기 박물관대학 미술사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선종의 성행과 통일신라 후반기의 화려한 미술'을 주제로 4월 1~6월 8일 10강에 걸쳐 서울 종로 가회동에 위치한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매주 월요일 2시부터 2시간씩 열린다.

강좌는 △선종의 수용과 통일신라 후반기의 화려한 불교조각(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통일신라 후반기의 승탑과 섬세한 부조상(강삼혜 국립경주박물관 학예관) △통일신라 후반기의 세련된 석탑(소재구 前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통일신라 후반기의 철불상 유행(주수완 우석대 교수) △통일신라 후반기의 아름다운 불교공예-범종, 사리기 등(이용진 동국대 교수) △통일신라 후반기의 유리공예(박천수 경북대 박물관장) △통일신라 후반기의 섬서한 불교문양(고승희 동국대 교수) △통일신라 후반기위 선종의 성향과 불교의 전국화(문무왕 동국대 외래교수) △불국사 불교미술의 전개와 금동아미타·비로자나불상 및 비로자나불상의 성행(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불교미술답사(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로 진행된다.

6월 29일 열리는 '700년의 고찰, 봉국사의 불교미술 학술세미나'도 참여 가능하다.

불교가 적극적으로 확산됐던 통일신라 후반기 9세기에는 선종과 화엄종을 중심으로 불교가 성황을 이뤘다. 불교의 전국화와 더불어 불교미술도 불상, 불화, 석탑이 전국적으로 크게 유행했다.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이처럼 중요성을 가진 화려하고 섬세한 통일신라 후반기의 불교미술사를 강좌를 통해 상세히 다룬다"면서 동호인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02-3673-3426

임은호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6~3/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조계종 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니까야로읽는금강경	이중표 역해	불광출판사
2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11) 마음을 만드는 뇌의 구조	문일수	운주사
3	부처님의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8	비움과 금강경:근본불교와 대승에서의 공	시현 번역과 해설	사유수
4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 학술원 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9	불교문화(조계종신도교재4)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5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10	불교사의 이해(조계종신도교재3) 역사	이만 외	조계종출판사

책세상

불교·유교, 대립만 했을까… 논쟁하며 성장했다



유교와 불교의 대화
김도일 · 유용빈 엮음
도서출판 장경각/ 3만원



백련불교문화재단은 3월 6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유교와 불교의 대화' 출간기자간담회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장, 백련불교문화재단 사무국장 일엄 스님과 이사장 원택 스님, 김도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과 유용빈 연구원.

성철사상硏 · 성균관대 유교문화
2021년 공동세미나 논문들 보완
중국불교 · 유교 대화 여정 조명
불교 · 유교 관계 연구 서막 열어
대화와 소통 관련 연구 지속 예정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과 중국, 일본 동북아 삼국의 사상과 문화의 중요한 축은 불교와 유교에 기반한다. 불교와 유교는 동북아 삼국의 역사 속에서 정치 이데올로기로 작동했으며, 민중들의 풍습, 의례에 영향을 끼쳤다. 그랬기에 불교와 유교는 대화와 소통하며 교류하기도 때로는 논쟁하며 자기 사상의 우월성을 부각하려하기도 했다. 끊임없는 대화와 논쟁 속에서 불교와 유교는 서로에게 영향을 줬고, 사상적 변주로 이어졌다.

그렇기에 도서출판 장경각(대표 원택 스님)이 근간한 〈유교와 불교의 대화〉는 주목할 만한 연구서다.

이 책은 지난 2021년 11월 26일 성철사상연구원(이사장 원택 스님)과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소장 김도일 교수)가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의 소통과 조화'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세미나의 성과물들을 바탕한 것이다.

성철사상연구원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는 '유교와 불교의 대화'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총론과 명말청조에 이뤄진 불교와 유교의 대화 양상을 보완했다.

〈유교와 불교의 대화〉는 유교와 불교의 교류 양상을 '격의'와 '융합'을 화두로 삼아 거시적 관점에서 다섯 부분으로 나눠 조망했다.

첫째 부분은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유교와 불교의 대화 양상을 개괄하는 총론인 '중국 역사를 통해 본 유교와 불교의 대화'다. 두 번째 부분은 불교의 중국화 초기부터 당대(唐代)에 이르는 불성 개념을 통한 유불융합에 대한 탐구로, 석길암의 '불성 개념의 중국적 변용 과정'이다.

세 번째 부분은 송·명대에 심화된 유불융합에 주목하는 내용들로 △이원석의 '유자휘에게 끼친 대혜종고의 영향' △이해임의 '장구성은 대혜종고에게 무엇을 배웠는가' △변희욱의 '송대의 간화와 격물' △정상봉 '주희가 본 육구연의 심학과 선' △김진무의 '조사선과 육왕 심학의 교섭관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네 번째 부분은 명말청초 불교계의 격의 양상을 고찰하며, 중국학자 진영혁(陳永革)의 '중국 전근대 유불 관계: 만명 불교의 양지심학론', 유용빈의 '지욱 〈논어점정〉의 이불해유에 대한 고찰' 등이 게재됐다. 다섯 번째 부분은 청말민초의 새로운 유학에서 시도된 유불융합에 대한 탐구로, 김제란의 '현대신유학에 나타난 유학·불교 융합의 방식들: 웅십력, 당군의, 모종삼 3인의 철학을 중심으로'가 수록됐다.

'불교와 유교의 대화시리즈'의 첫 권인 이번 연구서는 불교와 유교라는 두 사상 간의 대화와 소통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면서 두 사상의 관계를 조명하는 연구의 서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용빈 성균대 유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유교와 불교의 대화 양상을 동아시아의 사상사적 맥락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는 우리 학계에서 흔하지 않았다"면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유교와 불교 간의 상호작용과 그 영향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오랜 갈등 관계였던 불교와 유교가 어떻게 대화하고 논쟁했는지를 살펴보면 현재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도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은 "불교와 유교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을 살펴보면 서로를 보완하고 성장시키는 측면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교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 준다"고 강조했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불교와 유교라는 두 전통은 2000년에 걸친 세월 동안 치열한 갈등과 대립 속에 있었지만 그 내면을 보면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갔음을 알 수 있다"면서 "선인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정신을 되살린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립과 갈등, 분열과 투쟁이라는 사회적 병을 치유하는 데 양약이 될 지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책이 차이를 넘어 화합과 공존의 지혜를 찾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이 같은 대화가 반향을 일으켜서 제2·3의 대화모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두 연구기관은 대립과 소통, 조화와 공존의 흐름을 조명하는 연구를 시리즈로 기획해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책 속으로

불성(佛性)과 인성(人性)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에서 일어난 불교와 유교의 교섭 과정에서 불교적 사유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불성이 주목되지만, 그것이 인도불교 본래의 사유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동일한 관점에서 불교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유교적 사유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인성을 주목하지만, 인성이라는 개념이 본래의 유교적 사유를 대표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 역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이 중국에서 불교와 유교의 교섭을 보여주는 접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며, 교섭 이후의 전개에서 각각의 사유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없다.

– '불교적 사유와 유교적 사유의 융합과 간격' 中

북송대 유학자들은 선사와 자유롭게 교류하며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은 담론을 나누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대혜와 장구성이다. 두 사람 모두 주전론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이를 빌미로 유배당했다. 이들은 진회(秦檜)를 중심으로 형성된 화친론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혜는 성리학에 대한 깊은 조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정자의 제자들이 물격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듯하다. 이는 대혜가 경산에서 장구성과 함께 격물·물격에 대해 담론하는 장면에서 엿볼 수 있었다.

– '장구성은 대혜종고에게 무엇을 배웠는가' 中

세계적 석학이 정리한 空사상 공부 입문서



공공부
가지야마 유이치 글
김성철 옮김
김영사/ 1만 6800원

'공(空)'은 초기불교에서부터 반야경, 중관, 유식 및 티베트불교와 여래장 그리고 동아시아 대승불교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다. 공사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대승불교를 바르게 알 수 있고, 선종의 기본경전인 〈금강경〉의 대의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의 저명한 학자 가지야마 유이치(梶山雄一, 1925~2004) 전 교토대학 교수의 저서 〈공 입문(空 入門)〉은 1992년 일본 슌주샤(春秋社)에서 처음 출간된 후, 독자들의 애정어린 요청에 2018년 〈스터디즈 공(スタディーズ空)〉으로 제목만 바꿔 재출간됐다. 2007년 한글로 번역됐다가 곧 절판됐지만, 불교를 공부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고책이나 복사본을 구해서도 보아야 하는 책으로 뒤늦게 호평을 받았다.

이번에 발간한 〈공 공부〉는 번역을 더욱 정확하게 다듬고, 어려운 불교 용어와 주요 인물에 대한 설명을 각주로 보충하여, 독자가 난해한 이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판 발행 후 30여 년 동안 진전된 학문적 연구 성과를 역자 후기에 더했다. 대승불교의 재가기원설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티베트불교 여래장사상 연구에 기반한 자공(自空)·타공(他空)의 공사상 분류와 그에 따른 영향을 소개해 30년간의 학문적 연구 흐름을 반영함으로써 공상상을 제대로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했다.

이 책은 불교의 핵심 교리인 무아, 연기, 공의 관계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한 공사상 입문서로, 불교 입문자뿐만 아니라 용수의 공사상과 대승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신중일 기자

종교문해력 총서

"왜 다시 종교인가?"
붓다·예수·무함마드·소태산에게 묻는
인생의 큰 고민과 가장 적절한 해답!

'이해 없는 믿음'은 이제 그만!
종교가 어려운 현대인을 위한 종교 감수성 입문서

'다름과 공감하는 시선'
종교문해력 총서

종교문해력은 '맹목적 믿음'이 아닌 '이성적 이해'의 측면에서 종교를 재해석하고 소통하는 능력으로, 올바른 종교의 선택과 바른 신행의 지향점을 제공한다. 종교문해력 총서는 종교학·붓다·예수·무함마드·소태산에게 들을 수 있는 인생과 가치관에 관한 가장 적절한 해답이 될 것이다.



01 종교 이후의 종교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
성해영 지음 | 272쪽 | 18,000원

02 미처 몰랐던 불교, 알고 싶었던 붓다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
강성용 지음 | 344쪽 | 20,000원

03 길 위의 그리스도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정경일 지음 | 272쪽 | 18,000원

04 무함마드에 대한 우리의 오만과 편견에 관하여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
박현도 지음 | 392쪽 | 22,000원

05 일상에서 찾은 원불교의 영성
소태산이 밝힌 정신개벽의 길
장진영 지음 | 336쪽 |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ABRAHAMIC FAMILY HOUSE

우리는 왜 염불을 해야 하는가



염불, 극락으로의 초대
선화 상인 법문
각산 정원규 · 이정희 편역
불광출판사
1만7000원

미국에 대승 처음으로 가져간
중국 선화 상인의 염불 법문
염불 목적과 의미 · 방법 망라
"염불은 극락세계 왕생 이끌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선화(宣化, 1918~1995·사진) 상인은 20세기 중국을 대표하는 선사 가운데 한 명으로, 불교가 잘 알려지지 않은 서양에 법을 전한 시대의 스승으로 꼽힌다. 특히 미국에 처음으로 대승을 가져가 눈 푸른 납자들을 탄생시키고 불교 경전을 영어와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데 힘을 쏟았다. 평생 아미타불 염불 수행을 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염불의 목적과 방법, 공덕으로 인한 가피 등을 강조해온 선화 상인의 가르침이 〈염불, 극락으로의 초대〉 한 권에 담겼다.

염불은 접근성이 유독 낮아 수많은 불자들의 사랑을 받는 불교 수행법이다.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명호를 반복해 부르면서 삼매에 들고,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또 죽은 뒤 부처의 세계인 정토, 즉 극락에 왕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정토신앙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수행법이다. 〈관무량수경〉에서도 '염불하는 사람은 하얀 연꽃과 같다'고 할 정도로 염불의 중요성을 전한다.

선화 상인은 평소 염불을 해야 하는 이유로 "임종 시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순조롭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다. 습관이란 조금씩 쌓아 이루는 것이기에 평소 염불하는 습관이 없는 이는 임종 시에 이르러 염불을 생각할 수 없거나 아예 염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부처를 이루면, 나의 명호 '아미타불'을 염하는 시방의 모든 중생을 반드시 나의 극락세계에 맞아들여 장래에 성불케 하리라. 나의 세계에는 중생이 모두 연꽃에서 화생하여 그에 따라서 몸은 오염됨이 없이 청정할 것이니라."

아미타부처님께서 비구승으로 인지(因地, 부처를 이루기 전 지위)에서 수행하던 때에 48대원을 발원한 내용 중 하나다. 아미타부처님이 이렇게 큰 원을 발했기 때문에 일체중생은 모두 염불 법문을 닦아야 하고, 이는 중생의 근기에 맞는 수행하기 쉬운 하나의 법문이라는 게 선화 상인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염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선화 상인은 △입으로 마음으로 염불하면서 행주좌와에 모두 아미타불을 염할 것 △부처님이든 보살님이든 염할 때 마음과 입이 참되고 정성스럽게 △망상과 잡념이 없도록 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서 염불의 네 가지 방법을 설한다.

첫째는 지명염불(持名念佛).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칭념하는 것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하고 염하는 것이다. 둘째는 관상염불(觀想念佛)로, 관상이란 마음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관상염불(觀相念佛)이다. 아미타부처님의 상을 대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을 뜻한다. 한 번 염불할 때마다 입으로 분명히 염송하고, 귀로는 분명히 듣고,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실상염불(實相念佛)이다. 자성법신의 참된 부처님을 염하는 것으로 곧 참선을 뜻한다. '염불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궁구하고, 염불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다.

일상단어로 풀어낸 희망과 감사의 詩 70편



세상은 모두가 희망
최유진 시
도서출판 도반
1만 2000원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가 보리수아래 감성시집시리즈 12번째 권인 최유진 시인의 첫 시집 〈세상은 모두가 희망〉을 출간했다.

세상 누구에게나 사는 어려움이 크든 작든 존재한다. 더욱이 장애를 갖고 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기고자 노력하며 극복해 가는 사람들이 있고 곁에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향기 나는 사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최유진 시인이 그런 사람일 것이다. 최유진 시인은 손가락 세 개로 컴퓨터 자판을 눌러 시를 쓰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를 슬픔 아닌 긍정으로 극복해 가는 철학적 사고로 아름다운 시를 써왔다. 이렇게 써온 수많은 시편 중에 70여 편을 모아 시집 〈세상은 모두가 희망〉으로 엮었다.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 사소한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일상으로 누리는 것.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 슬픔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
내게 오는 불행을 / 긍정으로 바꿔 나가는 것.
모험을 하는 것.
나약했던 내가 / 강하게 변신해가는 것.
다른 슬픔들을 / 끌어안아 주는 것.
–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전문

최유진 시인은 장애를 슬픔이나 불평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극복해 가는 철학을 체득했다. 나는 장애인이라하며 일상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슬픔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 장애인으로 사는 방법이라 했다. 이것이 나약했던 자신을 강하게 변신시키는 일이며, 인생의 모험이라는 것이다. 이 시집에 놓인 여러 시편에서, 자신을 슬픔에 맞서는 작은 거인으로 보기도 하고, 행복을 날라주는 작은 요정에 견주기도 했다.

최유진 시인은 작가의 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까지 참 수많은 역경을 거쳐야 했지만, 그것은 행복한 작업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시 쓰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시 쓰기가 나에겐 살아가는 기쁨이자, 삶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이 힘든 거지만 여기에 희망을 심어보기 위해서 나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그 내면에는 행복의 해답이 있고, 시 속에는 우정과 사랑이, 자연과 자연 사랑이 많은 넝쿨로 자라고 있으며, 동심이 아기자기 숨어 있다. 그러면서 시인의 시 앞에 서서 보면 그가 시인으로 세상을 향해 열어갈 문이 환하게 열려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연약한 존재 향한 따뜻한 감성 법문



태양에는 밤이 깃들지 않는다
자현 스님 글
불광출판사
1만 6000원

성(聖)과 속(俗), 그 사이를 오가며 누구보다 뜨거운 삶을 사는 수행자가 있다. 불교계 유명 방송인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자현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특유의 입담과 재치 있는 멘트로 불교를 가장 재미있고, 유쾌하게 소개하는 스님은 항상 대중과 호흡하는 불교계의 '인플루언서'이자 '엔터테이너'이다. 스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은 '학자'이다. 지금까지 7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술 등재지에 발표한 논문만 190여 편에 이르는 참 부지런한 불교학자이다.

그런 스님의 이번 신간은 특별하다. 산사와 속세를 오가며 잠시 동안의 침묵 사이에 떠오른 말들, 짧지만 진지한 단상(斷想)을 엮은 수상록(隨想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문 · 종교 분야의 교양서와 학술 연구서를 주로 선보인 스님에게 볼 수 없던 새로운 면모이다.

이 책에 실린 100여 편의 글들엔 평소 호탕한 웃음 뒤에 숨겨진 수행자로서의 진지한 고민과 다짐이 담겨 있다.

바람과 같이 걸림 없는 완전한 해방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가는 수행자의 길. 그 위에서 간혹 서럽고, 나약해지지만 수행자는 '나락이 도정되어 백미가 되듯' 자기 자신의 '두꺼운 껍질을 벗고 머트러움을 깎아'내 간다. 그리하여 스스로를 끊임없이 덜어내는 것. 그것이 출가인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약자로서의 권리보다는 현자로서의 배려가 있을 때 진정한 어른이 된다. –본문 중에서

스님은 멋들어진 힐링 대신 강직한 지혜와 용기를 준다. 이 책의 제목처럼 이미 '태양'과 같은 빛을 소유한 우리에게 '밤'의 어둠은 깃들 수 없다. 단지 미망에 가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면 '빛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임을 알아차려야 할 일이다.

우리는 모두 '용'이다. '너무 오래 가문 탓에 승천의 뜻을 잊어 용이라는 자각마저 희미해진' 그런 용. 하지만 '우렁찬 천둥과 섬광의 벼락'같은 진리를 마주할 때 '비로소 깊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때 우린 '영원의 행복과 평안 속으로 날개 없이 날아'갈 수 있다.

이 책은 지난 6년간 독자·불자들과 소통해 온 SNS에 남긴 스님의 짧은 글을 〈불광〉의 사진 80여 컷과 함께 엮은 결과이다. 감성적인 글과 사진은 독자 모두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는 속 깊은 용기를 선사해 줄 것이다. 법당 안에서 펼쳐지는 꼿꼿한 법문이 아닌, 길 위에 두런두런 모여 앉아 이루어지는 자현 스님의 감성 법문을 만나보자. 임은호 기자

운명 바꾸는 주도적인 삶의 태도



조용헌의 내공
조용헌 글
생각정원
2만1000원

스스로를 강호동양학자로 말하는 '조용헌'이 새 책 '내공'을 내놨다.

서양의 처세술과 습관, 긍정을 강조하는 심리학, 자기계발서들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조용헌이 동양적 관점의 처세와 지혜는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책 제목의 '내공'이란 동양의 정서로, 오랜 기간 수련을 통해 내면에 다져지는 힘과 기운이다. 내공에는 인내력, 집중력, 평점심 등이 포함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과 사건은 시공간, 인연이 얽혀 일어나기에 이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내공을 쌓고 다시 돌아올 파고를 넘을 수 있게 된다. 이 내공을 쌓는 법을 저자는 189가지의 압축된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씨줄 날줄로 제시한다. 신중일 기자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대종사

“집착 않고 마음 쓰라…‘금강경’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



혜거 대종사는… 1959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 김제 흥복사 등에서 수선안거했다. 1988년 금강선원을 개원했고, 〈한암대종사문집〉과 〈탄허대화상문집〉 편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 탄허불교문화재단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상담과 경전 강의, 불교TV 경전 강의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했다. 현재 금강선원 선원장을 비롯해 동국역경원장, 한국전통불교연구원 원장,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 대원정사 회주, 탄허기념박물관 관장,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심성개발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으며 2018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눈이라도 한바탕 내릴 것 같은 날씨에 서울 자곡동에 위치한 탄허기념불교박물관을 찾았다. 탄허기념불교박물관은 도심에 있지만, 큰 길에서 조금만 걸어 들어가니 산중 사찰처럼 고요하다.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대종사의 인터뷰는 탄허기념불교박물관에서 진행했다. 혜거 스님은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 탄허 스님 회상에서 사교와 사집을 공부했다.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여쭈었더니, “건강이 좋지 않아 작년 12월 이후 외부 사람을 처음 만난다”고 하셨다.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을 위해 시간을 허락해주신 혜거 스님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교차했다.

죄송한 마음을 추스르고 질문을 이어갔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열린 탄허 스님 열반 40주년 특별기획전에서 본 탄허 스님의 ‘섭심귀공(攝心歸空)’이라는 휘호의 의미가 궁금해서다. 필자의 질문에 스님은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마음을 가다듬어 공(空)의 세계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마음을 쓴다는 것은 탐진치의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섭심이란 탐진치가 제거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쓸 때 공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금강경〉이 중요한 이유는

탄허기념불교박물관의 외벽에는 〈금강경〉 전문이 새겨져 있다. 혜거 스님께서는 금강경 병풍을 800벌이나 썼다. 금강선원은 매년 ‘〈금강경〉 독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스님께 〈금강경〉을 중시하는 이유를 여쭸다.

“〈금강경〉은 대승시경입니다.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오게 된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불교가 발생한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진 것은 중생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공부이기에 그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대승은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중생을 위한 공부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반복해서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을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사상이 없어진 그 자리가 무아(無我)입니다.”

대승의 첫 번째 경전이 〈금강경〉인데, 반드시 외우고 실천해야 하는 경이란다. 그래서 ‘〈금강경〉 독송대회’를 열어 대중들에게 〈금강경〉을 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금강경〉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특히 ‘제10 장엄정토분’에 나오는 사구게는 이 경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불응주색 생심(不應住色生心)
불응주성향미촉법 생심
(不應住聲香味觸法 生心)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특히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구절에 대해 혜거 스님은 설명을 이어갔다.

“마음 쓰는 법과 세상사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는 것으로 잘사는 법을 가르쳐주셨어요.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 어느 곳에도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잘 쓰는 법인데,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내린 가르침입니다.”

스승 탄허 스님 원력 이어 譯經 매진
2016년부터 ‘화엄경소론찬요’ 번역 중
‘중생은 평등’… ‘화엄경’의 핵심 요지

금강경,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줘
“대승의 첫 경전… 반드시 외우고 실천”
중단됐던 독송대회, 올해부터 재개 예정

마음도 머무르면 집착이 돼 병이 되기에 머무름에서 벗어나야 한다. 머무름이 없으면 자유로운데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중생심이다. 그동안 코로나로 ‘금강경 독송대회’가 중단됐지만, 올해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 한다.

스승 같이 역경보살의 길로

혜거 스님은 2016년부터 〈화엄경소론찬요〉 120권을 번역해 책으로 펴내고 있다. 이미 번역은 끝나서 원고가 출판사로 넘어갔다고 하니 늦어도 내년까지는 완간될 예정이다. 〈화엄경소론찬요〉 역경은 불교계의 큰 불사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탄허 스님께서 〈화엄경〉을 번역해 침체된 한국불교의 화엄사상을 꽃피웠듯이 혜거 스님의 역경으로 처처에 화엄의 향기가 가득할 것이다.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의 〈화엄경〉 결사가 끝난 후 〈화엄경〉을 펼쳐 볼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몇 해 전 무비 스님께서 범어사에서 〈화엄경〉을 강의하시면서 서울에서도 〈화엄경〉 강의를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화엄경〉 강의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연히 병풍 뒤에 있는 청대(淸代) 도패 스님의 〈화염경소론찬요〉를 보고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화염경소론찬요〉를 대본으로 해 탄허 스님의 번역서를 참고하면서 현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 불사에 들어간 것이다.

혜거 스님은 “씨앗을 뿌려 놓으면 새싹이 돋아나듯 인연법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영은사에서 출가해 행자시절에 〈화염경〉을 청강한 것이 연이 돼 〈화엄경소론찬요〉 120권을 번역하게 됐다”고 했다.

스승 탄허 스님의 ‘설령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들어두면 글눈이 생겨 안 들은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방대한 〈화엄경〉을 읽을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짧게라도 어떤 경전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했다.

“〈화엄경〉은 이 세상에 있는 불교 유교 도교 등 모든 종교의 총집합체이며, 종교의 종지를 가르치는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가르치기 전과 가르친 후의 세상은 다릅니다. 부처님 이전의 사상은 전부 신본(神本)주의였어요. 신에 의해서 태어나고, 신에 의해서 살고, 신에 의해서 죽는 사상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화엄경〉이 나오면서부터 신본주의에서 인본(人本)주의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나온다. 마음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세상에 인본주의를 최초로 외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일체중생은 평등하다’라고 설하셨는데, 이 말씀은 인도를 뒤흔들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는 것이 〈화엄경〉의 핵심요지입니다. 일체중생이 평등하다는 이 사상 때문에 왕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지요. 또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니 바라문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들은 부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 팔상도 중 하나인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입니다. 나무 아래서 모든 마장을 한꺼번에 항복받은 분이 부처님입니다.”

13면에 계속

불교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대원불교학술총서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문일수 지음 / 360쪽 / 25,000원



달라이 라마의 정치철학

티베트인이 겪어온 비극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자비, 평화의 신념을 지켜온 달라이 라마의 정치철학과 사상을 담은 대표적인 100편의 글!

수바쉬 C. 카샵 편집, 허우성 · 허주형 옮김 / 876쪽 / 50,000원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지평

전통적인 불교명상과 불교심리학을 현대의 심리학 이론 및 실천과 융합하여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전망과 혁신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모리츠 키 편집, 이성동 · 김태수 옮김 / 932쪽 / 55,000원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으로 보여주는 한국불교의 역사!
한국불교통사
김경집 지음 / 392쪽 / 20,000원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리히 프롬과 불교
박찬국 지음 / 316쪽 / 20,000원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실천 방향 제시!
활생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 지음 / 368쪽 / 25,000원

불교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이 보여주는 놀라운 유사성과 상호 영감!
스토아철학과 서양불교
패트릭 어셔 지음, 이재석 옮김 / 152쪽 / 12,000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
불교의 무의식
윌리엄 왈드론 지음, 안성두 옮김 / 456쪽 / 23,000원

백운·태고·나옹의 선어록에 대한 문예 미학적 접급!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 / 312쪽 / 20,000원

가장 뛰어난 제자 24인의 삶과 수행, 깨달음의 과정을 담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냐나뽀니까 장로 외 지음, 김충현 옮김 / 728쪽 / 40,000원

〈근간〉
불교 윤리 1, 2 / 다니엘 코조트 외 지음, 이동수 옮김
윤회 / 로저 잭슨 지음, 윤희조 옮김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과연 부처님의 본뜻이었을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아날라요 지음, 김철 옮김 / 360쪽 / 20,000원

직접성과 즉각성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관점!
새로 보는 선불교
베르나르 포르 지음, 정천구 옮김 / 696쪽 / 45,000원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권 대학의 철학과 교재!
철학으로서의 불교
마크 시더리츠 지음, 강병화 옮김 / 648쪽 / 3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지상백고좌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대종사

“명상 궁금하면 읽어볼 수 있는 ‘명상사전’ 필요”

12면에 이어

시대마다 말이 달라 번역은 항시 이뤄져야
직역 원칙…“의역, 시간 지나면 의미 달라”
“‘명상사전’, 中日에도 없어…우리가 만들자”



혜거 스님이 관장으로 주석하고 있는 탄허기념불교박물관 전경. 2010년 개관한 박물관의 외벽은 〈금강경〉으로 장엄돼 있다. 모든 구조물에 부처님 가르침과 탄허 스님의 법등이 드러나 있다.



지난해 11월 8일 열린 탄허 스님 열반 40주년 특별전 개막식에서 혜거 스님이 참석 대중에게 전시된 탄허 스님 관련 전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당시 전시에는 탄허 스님 사진자료와 원고, 유묵들이 전시됐다.

〈화엄경〉이 방대하고 심오하지만, 원력을 가진 사람은 〈보현행원품〉을 독송하는 것이 좋고, 참선 명상을 하는 사람이라면 수행의 열 단계를 자세히 적은 〈십지품〉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하신다.

간화선, 〈화엄경〉 입법계품에 있어

간화선의 수행법은 제자들이 어른스님들에게 묻고 공부하는 것이다. 간화선은 대부분 스승들이 제자에게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 혜거 스님은 간화선의 수행법이 〈화엄경〉의 〈입법계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스님은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아는 것이 공부이지, 남이 가르쳐 주어서 깨닫는 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지요. 〈입법계품〉에 보면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해 깨닫게 돼요”라고 말씀했다. 〈입법계품〉의 구조가 간화선의 선문답이나 법거량에 해당되는 것이란다.

옛 선사들은 질문을 던지면 자상하게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무문관〉에 나오는 ‘조주의 발우’를 통해 알 수 있다.

조주 선사에게 한 스님이 물었다.
“저는 이제 막 총림에 들어왔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조주 선사가 “죽은 먹었느냐?”하고 물었다.
스님이 “먹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조주 선사는 말했다. “발우나 씻어라.”
그 스님은 문득 깨달았다.

선재동자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기에 깨달음이 가능했다. 이처럼 조주 선사에게 물음을 던진 스님도 공부가 간절했기에 ‘발우나 씻어라’라는 한마디에 깨달은 것이다. 예부터 참선 공부는 발심(發心), 분심(憤心), 대의심(大疑心)이 있어야 진전이 있다고 했다.

“선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으나 좌선 수행법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서원을 정립하고 그 위에 삼매 정진의 노력을 더 해야 합니다. 삼매를 닦아서 중생을 제도할 것이며 자신만을 위해 해탈을 구하지 않겠다는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원력이 있으면 참선 명상 중 일념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좌선의 핵심은 대원력과 대정진이란다. 원력이란 건물을 쌓기 위한 기초와도 같은 것이기에 원력 위에서 삼매를 닦아야 함을 일렀다. 〈기신론〉에서 네 가지 지혜 ‘사지원성(四智圓成)’을 언급했는데 이는 명상 수련의 4단계에 해당된다. 명상을 하기 전에 먼저 참선에 대한 기본을 알고 하는 것이 좋다면서 〈기신론〉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다.

“먼저, 불각(不覺)의 경지입니다. 이는 전5식(前五識)의 경지로, 마음의 근본 자리를 깨닫지 못했기에 불각이라고 합니다. 불각은 범부중생의 경지며 5관(五觀)의 세계로, 심지어 미물의 감각기능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곱 가지 악업인 살생, 도둑, 음란, 망어, 기어(綺語), 양설(兩舌), 악구(惡口)를 소멸해야 5관이 청정해집니다. 이것은 중생 범부의 첫 수행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를 ‘성소작지(成所作智)’라고 한다.

두 번째는 의식(意識)의 경지입니다. 5관이 청정해지면 지혜로 전환됩니다. 이는 제6 의식(意識)의 심소(心所)로써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사량분별해 집착하면 범부가 되고, 집착하지 않으면 육식의 지혜가 됩니다. 이 경지는 탐(貪), 진(瞋), 치(痴), 만(慢), 의(疑), 악견(惡見) 등 여섯 가지 번뇌를 끊어야 초발심 보살의 지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 ‘묘찰관지(妙觀察智)’라 합니다.”

스님께 악견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구했다. 다섯 가지의 악견이 있는데, ‘나’라는 것과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신견(身見),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단견(斷見) 즉 변견(邊見), 인과를 믿지 않은 사견(私見), 아견(我見)에 집착한 견취견(見取見), 잘못된 계율 내지 종교관에 의한 계금취견(戒禁取見)이다.

“잘못된 인식과 그릇된 사고를 떨쳐내고 건전하고 바른 정신을 가져야 참선 명상에 매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보살(菩薩)의 경지입니다. 법신보살의 깨달음 지혜인데, 수분각(隨分覺)이라 말합니다. 지혜, 자비, 공덕 등 어느 한 부분에 정통한 경지이며, 제7 말나식으로서 잠재력 예지력의 마음입니다. 아직도 깊숙이 남아있는 ‘나’라는 번뇌의 뿌리를 없애고자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수행으로 네 가지 번뇌인 아견(我見), 아취(我痴), 아만(我慢), 아애(我愛)를 없애면 무념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피차의 분별이 끊어지고 마음의 병이 소멸하기에 평등성지(平等性智)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경(究竟)의 경지입니다. 이는 참선 명상의 최고 경지인 원성실성(圓成實性)이며 구경각(究竟覺)입니다.”

혜거 스님은 “모두가 큰 서원을 세워 참선 명상의 수행으로 정진한다면 전쟁과 분쟁, 질병, 천재지변 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공부가 어려워도 금생에 보살의 대원력을 세워 공부하는 인(因)을 뿌려 놓아야 함을 강조했다.

譯經, 왜 중요한 것일까

혜거 스님은 스승 탄허 스님의 역경 원력을 이어가고 있는 선지식이다. 〈화엄경〉을 좀 더 읽기 쉬운 언어로 출간하고 있고, 현재 동국역경원장을 맡아 역경불사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 스님께 역경의 필요성과 어려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스님은 역경이 시대에 따라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중국말과 우리나라 말을 비교하면 중국말은 4천 년 전의 글자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뜻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말은 10년 전의 말과 지금의 말이 달라요. 1960년대에 나온 〈한글대장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지금과는 달라요. 지금 현재 있는 말 중 보편적인 언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번역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혜거 스님은 역경에서 의역이 아닌 직역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가 있단다. 의역하면 지금은 알아듣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뜻을 지니게 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중국과 일본에도 ‘명상사전’은 없어요. 일본에는 〈선학사전〉은 있는데, 선학과 명상은 달라요. ‘명상사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이내 스님이 물었다. “큰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면 ‘억’하고 소리를 치지요.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모른다고 답했더니, 혜거 스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춘추전국시대에 서진 군대를 이끄는 장군은 수천 명의 군사로 수만 명의 군사에게 포위됐다. 서진장은 어차피 우리는 다 죽는데, 소리라도 한 번 크게 지르자고 제안했다. 수천 명의 군사가 소리를 지르니 상대 진영에서 놀라서 모두 도망을 가버렸다. 이를 ‘대성일갈(大聲一喝)에 만군 격퇴’라 하는데, 이것이 할의 첫 번째 유래이다.

그 다음은 윷놀이를 하는데 윷이 옆으로 설 때가 있는데 이때 ‘악’하고 소리를 지르면 윷이 넘어간다. 이것이 ‘할’을 쓰게 된 유래이다. 임제 스님의 ‘할’은 여기서 전래됐다. 이것은 중국의 사고전서(四庫全書)에 나온단다. ‘명상사전’을 만들어 이러한 것까지도 정리해야 한다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모든 참선의 근본은 무심입니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진일보는 ‘무심’을 뜻합니다. 천길 우물 속에 빠지면 잡념이 없는 무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선의 구조입니다. 선의 구조를 이해시켜 놓으면 참선이 쉬워져요. 명상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누구라도 읽어볼 수 있는 ‘명상사전’이 필요합니다.”

혜거 스님의 깊은 가르침을 오래도록 듣고 싶었지만, 스님의 건강이 염려돼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스님은 돌아나서려는 범부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라”며 “참회 기도로 금생의 업은 소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자라면 염불의 공덕, 기도의 공덕을 믿어야 한다”고도 했다.

내 자신의 기도 공덕이 세상에 번져 사그러들지 않는 횃불이 되길 서원해본다.

문윤정 / 작가

빛과 자각의 연금술 저자
빛을 직접 몸, 마음, 영혼으로 체험
내안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치유 에너지



삶과 불성을 여는 마스터키를 자각선원에서 찾아보십시오.
자각선원은 가슴을 깨워 내면의 불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1. 전생치유, 빙의, 우울증, 정신병, 영가장애, 신병, 무속병, 조현병, 원인을 알수없는 특이한 질병
2. 굿과 천도제로 해결 안되는 영적인 문제
3. 수십년 수행해도 진전이 없는 스님, 보살님, 수행자
4. 가슴이 찢어지게 아팟던 한과 집착 정화 수행, 돈에 대한 한, 관계의 한, 권력의 한, 명예의 한, 사랑에 대한 한, 성에 대한 한으로 정신, 마음에 고통받으시는분
5. 가슴에 한과 집착을 내려 놓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 하고 싶은 분
6. 모든 질병, 고통, 아픔은 감정이 썩어 부정이 물질화된 고통체가 원인, 노여움, 서러움, 부러움, 두려움, 소유욕적인 사랑 가슴 정화 수행
7. 직접 몸,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가슴정화, 치유수행
8. 차크라 개발 수행 잠재능력 개발
9. 마음 영혼치유사 제자 양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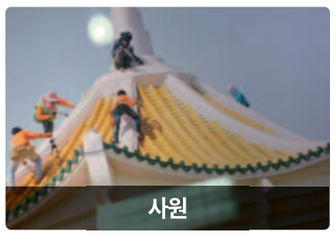
자각선원
책 구입 및 교육, 치유 문의 010-9242-5259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43번길 22번지 202호 자각선원
책은 알라딘, 예스24, 교보에서 판매중입니다

PREMIUM 싸이렌 SAIREN
since 1996 DONGWHA INDUSTRIAL 동화특수산업(주)
유해 조류, 해충 및 동물 기피제
제품상담/시공문의 동화특수산업(주) 조류방제사업부
031-451-6232 / 010-3747-2111

조류 기피제 구조물용
건축물 등에 피해를 주는 조류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모기·해충 기피제
천연 고급향료를 사용하여 개발된 제품입니다.
쥐 기피제
쥐를 해치지 않는 친환경 성분들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파충류 기피제
뱀, 도마뱀 등 파충류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멧돼지 기피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유해 조류(새)에 의한 피해 예방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❻ 서남산 코스(삼릉~용장골) 〈2〉

▶한줄 요약
경주 남산에는 절터 149곳, 불상이 129상이 확인된다. 하지만 절터 대다수는 폐허이고, 불상의 대부분도 불두가 훼손됐다. 이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경주 남산 사찰과 불상을 파괴하고 묘소를 썼기 때문이다.



경주 남산 불상은 누가 훼손했을까?

배동 삼존불상을 참배하고 길을 돌려 서남산길로 다시 나오면 조금 위에 삼릉이 오른쪽에 나타난다. 경주 남산의 소나무를 대표하는 구부러지고 멋스러운 철갑을 두른 소나무 숲에 삼릉이 있다. 삼릉은 8대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의 것이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천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무수한 신라왕릉 중 주인이 밝혀진 왕릉은 8기밖에 없다. 그렇기에 삼릉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내가 경주에서 제일로 뽑는 왕릉은 진평왕릉과 헌덕왕릉이다. 소박하고 고즈넉하면서 멋스러운 소나무에 둘러싸인 왕릉이다. 차 또는 커피와 돗자리만 있으면 눕거나 앉아 왕릉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포근히 안길 수 있어 좋아한다. 서남산의 삼릉은 소박함과 고즈넉함 그리고 멋스러운 소나무를 다 갖추었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쇠로 만든 울타리의 둘레가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사진이나 눈으로 담거나 보기에 풍경이 기가 막히지만 다가갈 수 없는 섭섭함이라고 할까 서운함이라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왕릉이다. 그러고 보니 경주 왕릉에서 가까이 다가서지 말라고 쇠로 된 울타리가 쳐진 왕릉이 또 있나 싶다. 앉아서 쉬고 싶지만 뭔가 그런 마음을 내기에 쉽지만은 않은 삼릉이다.

삼릉을 지나서 10분 정도 산을 좀 오르면 바위 위에 불두와 양손이 사라진 불상이 얹어져 있다. 불상이 있는 자리는 이제는 절의 이름도 추억도 사라진 '삼릉계 제2사지'라고 이름 붙여진 절터였다. 1964년 근처 계곡에서 불상이 발견되어 지금의 자리에 옮겨 놓았다. 불상은 왼쪽 어깨의 가사 매듭이 특별하다. 가사를 묶고 매듭을 지어 왼쪽 무릎에 늘어뜨려 놓았는데 술 장식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이런 가사를 끈과 매듭으로 결합한 모습은 남산의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에서도 비슷한 양식이 확인된다. 또한 불상의 중앙에 보이는 속옷인 '승기지'에도 매듭이 보인다. 가사와 속옷을 매듭으로 묶는 것은 지금의 한국불교계에선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매듭과 술을 재현하면 멋져 보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불상은 대좌와 하나의 돌로 조성되어 있다. 대다수 불상은 불신과 대좌를 따로 조성하는데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좌는 아예 다 파괴되어 있다. 큰 바위 자체를, 그래서 남산 자체를 대좌로 한 불상은 아닐까 상상해 본다. 그랬다면 남산을 기단으로 한 용장사지 삼층석탑과 늠비봉 오층석탑처럼 상식의 틀을 넘어선 남산을 대좌로 삼은 멋들어진 불상이었을 것인데 아쉬움이 남는다.



경주 남산 용장곡 석조여래좌상. 가사 소매들의 표현이 매우 섬세한 불상이지만, 불두와 수인이 훼손돼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경주 남산 불상들의 불두들이 훼손된 것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남산에 묘소로 조성하며 인근 절과 불상을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

경주 남산에서 발견된 불상은 대다수가 파괴되어 불두가 없는 경우가 많다. 탑들 또한 파괴되어 흩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2015년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의 사지〉의 경주 남산에 관한 자료에서 절터는 149곳이 확인된다. 그리고 석탑은 99개, 마애불상은 73상, 불상은 129상이 확인된다고 전한다. 그러나 149곳 대다수 절터는 모두 폐허이며 알아보기조차 힘들 지경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남산의 불교 유적의 폐허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도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남산에 관한 조사 자료와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이미 남산은 폐허의 상태였다. 불상은 모두 파괴되고 넘어져서 흩어져 있었으며 불두는 거의 모두 깨져 있었다. 남산의 석탑들 또한 모두 무너지고 파괴되어 있었다. 조선에 발을 들인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눈을 통해서도 경주 남산의 처참한 모습이 확인되는 것이다.

경주 남산 불상과 불탑의 파괴가 도굴에 의한 것이 아니란 점은 불두가 사라지고 몸만 남은 불상이 많은 것으로도 확인된다. 불상의 경우 불두에 부장물인 보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도굴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상황에서 횡행한 현상이었다. 조선시대 불교 유적과 관련된 도굴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그렇기에 조선시대 도굴을 위해 경주 남산의 불상과 불탑을 파괴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일제강점기 이전 경주 남산의 불상과 불탑은 파괴되어 있었다. 경주 남산의 불상 불두가 대다수 깨지고 잘린 것은 도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도굴을 위해 불두를 자르고 멀리 버려 지금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혹시나 도굴의 과정에서 석불이 넘어져서 깨진 것이라 해도 많은 경주 남산의 불상 불두가 사라졌거나 계곡에 나뒹굴던 이유가 되지 못한다. 도굴로 불상이 넘어진다고 불상의 불두가 깨져 사라질 리는 없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이전 남산의 불상과 불탑이 파괴되어 있었다는 점은 도굴에 의한 파괴가 아닌 점을 알려준다.

일제의 도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유리건판 사진보면 이미 훼손돼
경주 남산, 양반들 묘소로 활용
조선시대 家廟 조성하며 절 파괴
남산 불상들도 같은 이유로 훼손

경주국립박물관 야외 전시 석조 유물 중에는 불두가 없는 불상이 쭉 서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여기에는 1965년 분황사에서 발견된 석불이 20여 점이 있다. 분황사 뒷담 북쪽 30m 즈음에 있는 우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됐다. 토지의 주인이 논에 대는 물이 한곳에 고이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땅을 팠더니 괴석이 나왔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듣고 옛 문화재관리국에서 지하에 고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땅을 파 내려갔다. 그랬더니 40m 지점에서 석불이 출토되었는데 2m 정도 깊이로 석불이 계속 발견되었다. 옆을 보니 우물의 벽선이 확인되어 우물가에 던져진 석불로 판단됐다. 불상이 발견된 지점은 신라시대 분황사의 금당이나 강당의 부근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발견된 불상들은 모두 불두가 잘린 상태로 발견되었다. 발견된 불상 등 석조 유물은 석조여래좌상이 13구, 석조보살입상이 1구, 불두가 5점, 광배편이 1점, 그 외 불상이 6구이다. 조선시대 어느 때 분황사 주위에 있던 불상을 파괴하고 우물에 묻은 것이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왜 우물가에 버렸을까? 누군가는 파괴된 불상을 스님들이 우물가에 숨겨놓은 것이라고도 한다. 분명한 것은 조선시대 경주의 야외에 있던 석조불상이 파괴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특히나 경주 남산의 석조불상들이 거의 모두 파괴되고 불두가 깨져 사라진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 경주 남산의 불상과 석탑은 파괴된 것일까? 이유는 경주 남산 절터에 조성된 묘지에서 찾을 수 있다. 남산의 석탑이 있던 자리나 불상이 있던 자리에는 석탑과 불상이 파괴되고 묘지가 있었다. 남산의 등산로에는 경주 남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기에 묘지의 이장을 권하는 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다. 경주 남산에는 지금도 무수히 많은 묘지가 남아있다. 특히나 절터에는 묘지가 있거나 있었던 흔적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초기부터 이루어진 숭유억불 정책으로 사찰들은 불태워져 폐사되고 있다. 이러한 억불의 정책 속에 조선 말기가 되면 전국에 폐사지가 산재하게 되었을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폐사지에는 석조로 된 불상과 불탑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 말기가 되면 풍수지리의 영향으로 양반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금당과 불탑 자리에 모시는 유행이 불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순조실록〉에 보이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양반의 양주 회암사의 부도와 비석의 파괴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절터에 묘지를 쓰는 유행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꼽는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지를 쓰기 위한 예산 가야사의 파괴가 있다. 그러나 왕위에 등극한 고종과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본다면 절터를 파괴하고 석불과 석탑을 파괴한 인과응보의 무서움 또한 확인될 것인데 양반들의 이러한 파괴적 행동이 안타까울 뿐이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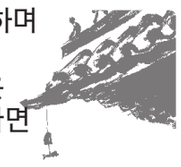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75호 | 15 | 전면광고

여러 악한 종류에 무리들이 많지 않게 하며
모든 악이 다하고 스러져서 스스로
사람을 여의게 하며 모든 악한 생각들은
생각함이 없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 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 무속인, 법사, 무당, 일반인, 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부전 스님 구합니다

경주 우황사

경주시 천북면 새터흥림길1-32

010-2239-03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 금륜사 법현 . 대진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60대 비구스님입니다.

불사를 성취발전 시켜드립니다.

철학 능통

010-9954-2500 해인합장

부전스님 1분
사무장님(여) 1분
공양주님(여) 1분
모십니다

부여 미암사

010-5424-5555

개인 지도 (통변비법 전수)

사주 · 작명 · 관상 · 풍수 · 타로

NAVER 용인 수현 철학원 검색
NAVER 송파 조수현 철학원 검색

010-8436-0056 / 010-8232-0057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나를 닦는 백팔배(백팔대참회문)

The Sound of Life

생명의 소리 CD

특가 12,000원

'절이란 참으로 진지하게
나를 닦는 방법입니다!'

"모든 생명을 지극히 내안에 모시고
살림의 장을 확산해 나가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108배를 올립니다"



1. 절을 하는 마음 낭송 (01:17)
2. 나를 닦는 108배 낭송과 음악 (37:39)
3. 명상음악 "영혼의 피리소리" (05:40)

연주 - 김영동 (대금, 단소, 훈)
삽입곡 - 대금독주곡(즉흥연주)
단소독주곡(즉흥연주)
영가1 - 자연의 소리
영가2 - 자연의 소리
수제천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75호 | 16 | 전면광고

인자하여 생물을 죽이지 않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지키면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
어디를 가나 근심 없으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1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 • 매가 : 17억2천
- 위치 : 인천 • 부지 : 200평 • 법당 : 60평 • 요사:60평 • 매가 : 1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채권 인수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 대지 : 약 340평
- 건물 : 1, 2층 – 1층 26평, 2층 법당 20평, 요사채 15평(거실2칸, 해우소 3칸)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8914-1762

사 찰 안 내

- 법당 요사채 2개, 방 5개, 임야 2100평
- 사찰 밑 아파트 3000세대 거주
- 시내 8분 거리
- 가격 2억 5천만원(절충가능)
- 창원시 마산 합포구

010-4192-033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 종교용지, 대지 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 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 중 1층 요사 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 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집기 일체 포함, 즉시 법회 가능
- 건강상 시가이하로 7억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동해시
- 여법한 목조건물(법당30평,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공양간, 창고, 주차장) 동해시와삼척 중간지점으로 포교 최적지임 / 인근에 휴양지 근접 (추암, 망상, 증산, 삼척해변)
- 원력과비젼을 가진분께 양도함
- 주지스님의 건강상 가액은 시세 이하로 협의합니다.
- 좋은 인연을 기대합니다

010-9279-45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 대지 : 약 50평
- 건물 : 3동 법당 8평 주지실 6평 용왕당, 3평 공양, 방3개, CCTV 4개
- 가액 : 6천
- 부동산 전화 사절
- 비구니 스님환영

010-7506-8604

사찰(급)안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010-4180-1788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경북 청도군 면소재지 중심지 도로변 2층
- 경치좋고 물좋은 곳으로 고찰이 많은 불자동네
- 5분 거리내 대형마트 3곳
- 법당 · 주방 · 방2 · 화장실2 실평수 약 60평
- 비품시설 1500만원, 보증금 500/40
- 사주 방편 있으신 분 추천

010-7942-9015

사찰(급)안내

- 위 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 임 야 : 2,000평
- 기도방 3개, 산신각, 용궁, 선황, 요사채
- 매매가 : 2억 7천 (가격절충)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4799-9448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 소재
- 종교 부지 적합함
- 관광산업 단지로도 활용도가 높은 토지
- 토지(과수) : 약 2800평 • 대지 : 약 200평
- 2층 건물 1동 : 약 60평
- 매매금액 : 상호 협의하에관심 있으신 분께 영상 보내드립니다. 전화 · 문자 주세요.

010-3119-33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 3천5백만원

010-5316-5669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 5천만원 (절충 가능)

010-4835-1739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오곤 한의사가
강 력 추 천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 · 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베개를 밸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베개 20만원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잘못 묻은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안의 Media In Buddha

㉟ 영화 〈파묘〉

학교 다닐 때, 소풍날이나 운동회에 비가 오면 아이들끼리 소곤대곤 했다. '우리 학교 처음 지을 때 땅을 파는데 피가 쏟아지더니 커다란 이무기 몸통을 잘랐대. 하루만 더 있으면 용이 되어 승천하려던 이무기였는데 그렇게 죽게 되면서 원한을 품고 저주를 내렸대. 그래서 소풍날이나 운동회 때마다 비가 오게 된 거래.' 뭐 이런 이야기들.

황당하지만 뭐,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니기도 하다. 근대적 학교는 갑자기 넓은 빈 터를 필요로 했고, 풍수를 오래 존중해온 문화권에서 좋은 땅은 이미 '명당'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에서는 이미 사람이 들어 살거나 땅값이 엄청 비쌌고, 농사가 경제의 바탕인 사회에서 볕 잘 들고 땅 힘 좋은 터는 논이 되고 밭이 되었으며, 사람 모여 살만하지 않은 산골에서도 자리가 좋다 싶으면 이름 있는 집안 대대로 선산 묏자리로 차지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값이 헐하고 살만 하지 않은 터는 학교 자리가 되고, 병원 자리가 되다 보니 흉한 이야기가 돌게 되기도 했을 것이다.

과학도 학문도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동서고금 어디에나 있어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중문화와 만나 장르가 되었다. 오컬트, 과학적으로 규명도 설명도 할 수 없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 가령 귀신이 들렸다거나 저주에 씌었다거나 괴수가 날뛴다거나 하는 이 장르는 판타스틱 문학과 영화의 큰 축이 되고 있다.

예전에는 '납량특선'이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여름이면 오컬트가 개봉되고는 했다. 으스스한 내용의 영화들을 보면서 더위를 물리치라는 상업적 계산으로. 냉난방 시설이 보편화 되면서 오컬트도 계절을 타는 장르가 아니게 되었다. 3.1절을 앞두고 〈파묘〉가 개봉하게 된 것처럼.

공포와 불안, 긴장과 불길함이 관람의 한 요소가 되는 장르다 보니 매니아는 있어도 초대박이 쉽지 않은 장르가 오컬트인데 지금 〈파묘〉(장재현 감독)의 기세는 한국영화 오컬트의 역사뿐 아니라 흥행사 자체를 새로 쓰고 있다.



영화 〈파묘〉의 한 장면.

망자는 천도재로 이끌 수 있지만 산자는 삶을 이어 나가야 하기에 과거를 돌아보는 파묘는 계속된다

이 영화 자체가 역사를 파헤치듯이.

〈검은 사제들〉, 〈사바하〉 등 이미 오컬트 장르를 빚어내는 데 탁월한 장재현 감독이 풍수, 장례지도, 무당 역을 맡긴 배우들은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이도현이 뭉친 '묘벤저스' 4인방. 이들은 각각 장르 영화나 드라마에서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연기자들이다. 이들을 위협하는 '험한 것'도 영상 콘텐츠에서는 이미 대세가 된 CG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배우 김민준과 농구선수 김병오 두 사람이 실제 몸으로 연기한 것이라 인공적인 화면과는 결이 다른 날것 그대로인 육체에서 나오는 조화와 긴장이 배어있다.

'험한 것'의 존재감이 살아 있는 것이듯 〈파묘〉의 이야기도 살아 있다. 영화는 한국의 무당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날아가는 데서 시작한다. 현대의학으로도 까닭을 모르겠는 증상으로 앓고 있는 아기의 병세를 살피러.

아기도 아기지만 장손들에게 흉사가 대물림하는 내력까지 알아챈 무당이 말하기를 조상 묘를 잘못 써서 문제란다. 미국에 이민 가 으리으리하게 살고 있던 집안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길은 집안 내력을 되짚어야 하는 길이고, 그 집안이 무덤 속에 묻어버린 일들을 파헤쳐 드러내는 길이고, 조상 모시는 정성을 최고의 효성으로 치는 장례문화와 묏자리로 조상 덕 보겠다는 풍수사상의 뿌리가 깊은 문화권 출신이니 성공한 이민자 집안에서 파묘 비용에 10억 들이는 걸 감당하는 것도 과하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려니 싶다.

묏자리 길흉을 살피려니 풍수를 봐야겠고, 흉한 묏자리면 예전 묘를 파헤쳐 망자의 시신을 새로 수습하려니 장례지도사가 같이 살펴야겠고, 받은 돈이 크니 최고끼리 모여 나서기까지 망설임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막상 묏자리를 가보고서 당황한다. 상식적으로 묘를 쓸 자리가 아닌 곳에 자리한 무덤, 무덤까지 가는 길에 보이는 여우 무리, 파묘하고도 관을 열지 말고 염도 새로 하지 말고 바로 화장하라는 의뢰인 집안, 이런 일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 눈으로 볼 때 위험하고 흉한 일이라 보수가 얼마든 거절하고 싶어진다. 그래도 이들이 결국 나서기로 한 건 아기 목숨이 달렸기 때문이다.

〈파묘〉는 앞으로 살아갈 존재에게 닥친 위기에서 시작해 그 존재를 위협하는 과거의 망령, 그 망령이 숨기고 있는 것은 그냥 과거가 아니라 뒤틀린 역사, 그 역사 때문에 위기를 겪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촘촘한 업보의 망이 무덤 하나에 중첩되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들이댄 돋보기 같은 영화다.

일제강점기에 작위 받아 부와 권세를 누린 친일 집안에 맞서 항일독립군이 겨루고 있었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있는 집안일수록 풍수 따져가며 돈도 들이고 품도 들여온 오랜 풍습, 음양도를 믿어 음양사를 따로 관료로 등용했던 일본의 역사, 음양사 가운데도 여러 기담과 영화·만화에서 인용되는 여우의 핏줄이라는 아베노 세이메이를 빗댄 연출, 지금까지 청산되지 않은 친일 논란들이 실제 파묘와 이장에서 이뤄져왔던 제례 형식과 무속 퍼포먼스에 어우러져 스크린을 휘몰아친다.

〈파묘〉가 불러들이는 역사나 무속은 전혀 낯설지 않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도 매년 '신년운세'를 보고, 액막이로 아기 백일날 수수팥떡에 해 바뀔 때면 동지팥죽, 새로 시작하는 일에는 고사떡 돌리는 풍속에 입맛 길들여지고, 무속인 찾아가 연예인들 사주팔자 보는 콘텐츠가 공중파부터 인터넷까지 넘쳐나고, 손바닥에 쓰여진 '王'자가 방송에 잡혀 대통령 후보가 공개적 해명을 했어야 했던 게 현실이니까.

오컬트 장르가 대중적인 까닭은 그것이 무섭고 기이한 볼거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현실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겪었거나 전해들은 이야기들, 일어났던 일들, 그것들로부터 만들어진 괴이한 소문들의 잉여가 불러일으키는 현실적인 불안과 공포가 대중에게 공감받으면서 '있을 법한 가능성'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그 가능성이 실현가능한 것일수록 더 쫄깃하고 짜릿하므로 오컬트의 뿌리는 현실을 깊이 파헤칠수록 성공적이 된다.

죽은 이를 장사지내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윤회를 믿고 영가의 성불을 기원하는 불교에서는 화장이 자연스러웠으나 육신의 부활을 믿는 종교들은 아예 화장을 금지했었다. 가톨릭이 화장을 허용한 것도 1983년 교회법을 고치고 나서부터였고, 설이나 추석의 중심 행사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이고, 할로윈은 망자들이 돌아오는 날을 기리는 행사였다. 〈파묘〉는 제대로 된 장례는 바로 산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과거사가 잘못 묻어버린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현실이 위태롭다는 걱정을 보탠 영화다. 최선을 다해 현실을 잘 살기 위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노력해보자는 소망까지 덤으로 붙여서.

〈파묘〉의 흥행은 대중들의 기원을 담고 있다. 망자는 천도재로 이끌 수 있다지만 살아있는 존재들은 계속 살아가며 인연을 이어가야 하고, 그 인연의 다발이 역사를 이루니 현재가 잘못될 때마다 과거를 돌아보는 파묘는 계속 될 것이고, 묻혀있던 '험한 것'들을 없애나갈 때마다 현실이 그만큼 나아질 것이기에.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⑪

1. 인도의 계급사회를 규정짓고 있는 사성 계급제도 중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신 계급은?

① 불가촉천민 계급
② 사제(브라만) 계급
③ 서민(바이샤) 계급
④ 노예(수드라) 계급
⑤ 왕족(크샤트리아) 계급

해설 : 부처님께서는 카필라바스투의 왕족인 정반왕과 마야부인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즉 왕족(크샤트리아) 계급으로 태어나셨다.

2. 불교가 발생할 무렵 기원전 6세기의 인도사회의 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갠지스강 유역에 농산물의 대량유통으로 상업이 발달함
-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붕괴되고 군소국가가 성립되면서 귀족정치, 공화정치가 행해짐(코살라, 마가다국 등)
- 상공업자가 경제적 실권 장악
- 점차 바라문 계급은 권위를 상실하고 대신 왕족 세력이 강화됨
- 아리아인과 원주민과의 결혼으로 혼혈족 탄생
- 이 시대의 인도는 사회적·사상적으로 전환기를 맞이하였음

[보기]
ㄱ. 사문들이 출현하여 다양한 사상을 펼쳤다
ㄴ. 왕권이 강화되어 왕족은 최고의 카스트가 되었다.
ㄷ. 석가모니 부처님은 크게 성공한 상공업자의 후손으로서 당시의 관습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였다.
ㄹ. 왕족이나 부유한 상인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큰 후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아 불교가 널리 전파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 불교가 발생할 무렵 자유사상가들인 사문들이 출현하여 최고의 카스트라는 바라문과는 다른 다양한 사상을 펼쳤으며, 고타마는 왕족으로 태어나셔서 출가하여 부처님을 이루신 후 왕족과 부유한 상인들의 큰 후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받으셨다.

3. 〈리그베다〉에 실려 있는 사성제도의 근거 신화와 관련이 없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는 이 모든 창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입, 팔, 넓적다리, 그리고 발에서 태어난 것들에게 각각의 업을 정하였다. 바라문에게는 베다의 교수와 학습, 그리고 제사, 보시하기와 보시를 받는 일을 정하였다. 크샤트리아에게는 인민을 보호하는 일, 보시하는 일, 제사를 지내고 베다를 배우는 일, 그리고 감각적 대상에 집착하지 말 것을 정하였다. 바이샤에게는 가축을 기르는 일, 보시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 베다의 학습·장사, 돈을 벌어주는 일, 토지의 경작 등을 정하였다. 그러나 수드라를 위해 정한 유일한 업은 원망과 슬픔 없이 다른 삼종성에게 봉사하는 일이다."

[보기]
ㄱ. 현재 인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에 만족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
ㄴ. 다른 계급과의 혼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신분이 높은 여자는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
ㄷ. 노예 계급인 수드라는 일생족이라 하여 종교적 의무나 권리가 없으며 직업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ㄹ. 석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신분제도는 불합리한 것이라 여기고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을 갖는다고 설파했다.

①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 인도에서는 태어난 신분에 대한 불만으로 불교나 기타 종교로의 개종이 일어나고 있으며, 신분이 자신보다 낮은 계급과 결혼하는 여성의 경우 가족의 명예를 실추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러 가지 억압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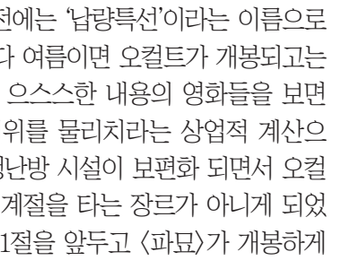
정답 : ① ② ② ③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12대 총무원 총무부장 임명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은 3월 7일 종무협의회를 열고 혜광 스님을 제12대 총무원 집행부 총무부장으로 임명하였다.

불기 2568년(2024) 3월 13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중앙종회 2023년 결산 승인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중앙종회는 3월 7일 총본산 서울 일붕선원에서 불기 2568년도 제77회 임시 중앙종회를 열고 2023년도 수입 지출 결산 감사보고 및 결산을 승인하였다.

불기 2568년(2024) 3월 13일

일붕선교종 중앙종회의장 도정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3월 13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제1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3월 20일 오전 11시 총무원이 위치한 인천 대성사에서 2024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기에 이를 알립니다. 아울러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였습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항시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3월 13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⑥ 관세음보살보문품 ①



▶한줄 요약
너무 작고 낮아서 웬만큼 집중하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는 바로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일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듣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세상 모든 소리를 듣는 자, 관세음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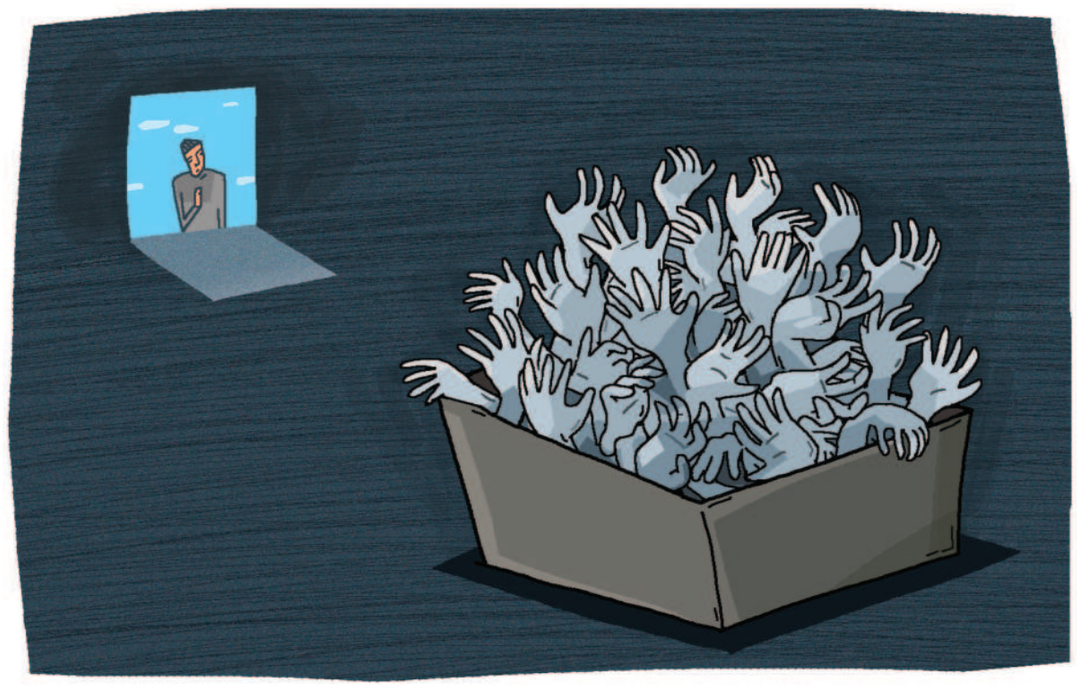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도와달라 내미는 손

태국 북부에 자리한 아름다운 도시 치앙마이를 며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른 여행객들이 반드시 다녀오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 치앙라이입니다. 그곳에는 왓롱쿤(백색사원)이라는 꽤 인상적인 절이 있는데 이름 그대로 이 절은 온통 하얀색입니다. 태국의 한 건축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지은 절입니다. 눈부시게 화창한 날 이 절에 가면 그야말로 온통 새하얀 사원에 눈이 부시고, 아름답고 또 기괴하기도 한 장식물들이 가득 있어서 시종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대웅전으로 가려면 작은 연못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충격적인 조각물들이 한 가득입니다. 바로, 연못 바닥에서부터 위로 향해 치켜 올린 사람의 손들입니다. 더러 발우를 치켜들고 있는 손도 있는데, 빼곡하게 연못을 채운 새하얀 손들이 서로 뒤엉켜서 할 수 있는 한 높이 치켜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뵈러 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내 손 좀 잡아서 위로 끌어올려달라고 간절하게 비는 것 같아서 대웅전으로 향하는 발길이 무거워집니다. 이 손들은 생각건대 지옥 중생들의 것입니다. 그 손들을 지나쳐 법당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저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지옥 중생을 구해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지장보살마하살이나 관세음보살마하살 같은 분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저 '아이고, 난 나중에 저런 지경에까지 떨어지지는 말아야겠다'하는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말이지요.

건축가는 이 연못을 조성하면서 "악업 짓지 마십시오. 악업 지으면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떨어진 뒤에 후회하면서 살려 달라고 손을 내밀지 말고 살아 있을 때 선업을 많이, 아주 많이, 그리고 부지런히 지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악업 짓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일 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도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나쁜 짓 하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악업을 짓고 맙니다.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사정 좀 봐주세요."

일단 저지른 뒤 이렇게 비는 것이 사람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하소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옥 옥졸은 다그칩니다.

"시끄럽소. 그 누구 탓도 아니오. 어찌됐거나 당신이 악업을 지었으니 그 괴로운 과보는 고스란히 당신 몫이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악업을 지었노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악업을 멈추고 선업을 지어야 하오."

–〈맛지마 니까야〉 천사경

그 오래된 경전에 이렇게 까지 나오는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은 게 분명합니다. 지옥 옥졸 앞에서야 어쩔 수 없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서라면 '내가 아무리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일단 살려주고 나서 야단치든지 내치든지 하라'고 애원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 평탄하게 참 잘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놓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느 순간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살려 달라고 외칠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복보다 절박한 S.O.S

불교는 스스로 마음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울고 불며 두 손 모아 살려 달라 빌 일이 없게 안내하는 종교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제 마음 그릇이 커지고 지혜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향상(向上)하는 자신을 보며 흐뭇해지고, 그 흐뭇함이 또 스스로를 수행으로 나아가게 책려합니다.

부쩍 청력이 떨어진 어머니께
보청기를 해드리니 하는 말씀
"이 소릴 어떻게 다 듣고 사니"
'관세음' 세상 소리 관한다 의미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은 너무 멀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괴로움은 너무 가깝습니다.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지만 '그건 팔자 좋은 사람들이 수행 열심히 하는 경우나 그렇고,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불부터 꺼야 하지 않냐 말이다'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절에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기복불교를 멀리하라는 따끔한 경책도 있지만, 나는 지금 복을 비는 '기복'이 아니라 재난을 피하고 불행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고 싶은 '재난 소멸, 액운 방지'가 절실하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 조차도 종교 영역인데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나 액난과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속에 욕심이나 성냄이 지글지글 끓어 넘칠 때, 또는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을 때 무조건 "관세음보살!"하고 외쳐보거나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면 됩니다. 그럼 바라는 대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라는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전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볼까요?

소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제목부터 짚어보면 네 개의 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

①'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참 많은 소리가 나는 곳입니다. 각양각색의 소리들이 대기에 가득 차 있지요. 엄마가 7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부쩍 청력이 떨어졌습니다. 보청기라도 하시자고 권했지만 "나이 들면 원래 안 들리는 법"이라며 애써 싫다 하셨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안타까웠지요. 세상 소리를 듣지 못하면 위험하기도 했고, 엄마에게 말을 건넬 때 일상대화조차도 소리를 질러대니 엄마는 늘 딸의 고함치는 험상궂은 표정을 보시며 노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서둘러 보청기를 장만해 드렸습니다.

그날의 일이 생각납니다. 보청기를 양쪽 귀에 꽂고 아파트 공원을 산책하시던 중에 몸서리치시듯 놀라며 내게 물었지요.

"왜 이리 세상이 시끄럽니?"

특별히 소음이 일어난 것도 아니라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멀뚱멀뚱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딸에게 엄마는 다시 묻습니다.

"넌 지금까지 이 소리를 다 듣고 살았니? 시끄러워서 어떻게 견뎠니?"

엄마도 늘 듣던 소리였을 텐데 노화로 인해 차츰 듣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이날 엄마가 내게 던진 물음은 화두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 소리가 기쁘고 즐거워서 외치는 환호성이고, 다른 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하하는 소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런 소리도 아주 많이 들려오지만 그 소리 이면에 들리는 또 다른 소리, 너무 작고 낮아서 웬만큼 집중하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는 바로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소리를 듣는 분이 관세음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 즉시 소리 나는 곳으로 얼굴과 온몸을 돌려 살펴봅니다.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생각하려면 잘 살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세음이란 세상의 소리를 보는 분입니다.

②'보살'이란 말은 앞으로도 자주 말씀드릴 테니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보살은 보리살타 즉 보리(깨달음)와 살타(중생)이라는 단어 두 개가 합친 말입니다. 관세음은 깨달음이 확정된 중생입니다. 깨달음은 부처님의 깨달음인 아뇩다라삼먁삼보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강의 시간에 용감하게 말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부처님 급(級)이라고요. 그러니 부처님에게 의지하고픈 마음을 그대로 관세음보살에게 쏟아부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③'보문'이란 말을 들을 때면 늘 서울의 보문동이 떠오릅니다. 이 지역 이름도 보문사에서 가져왔다고 하니 보문품에서 보문동을 연상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뿐인가요? 경주에도 보문단지가 있지요. 보(普)는 보편적, 보통, 어느 곳 어느 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된다는 뜻이요, 문(門)은 한문으로는 들고날 때 통과하는 출입구의 뜻이고 얼굴, 입의 뜻도 있습니다. 누군가 또는 어딘가를 향할 때 우리는 보통 얼굴을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보문이란 말에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활짝 열린 문이란 뜻, 관세음보살은 도와달라고 외치는 존재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달려가 그들을 구원하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④'품'이란 말은 챕터(chapter), 장(章)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독립된 한 권의 경전이 아닌, 어떤 책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묘법연화경입니다. 묘법연화경은 28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고, 그 중에 25번째 장이 관세음보살보문품입니다. 아예 관음경이라는 독립경전으로 널리 퍼지기도 했지요.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현대불교신문
구 독 안 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탁탁 밀고 나가 보라

(지난 호에 이어서)

욕심이 생겼다는 얘깁니다. 욕심이 생겼는데 내가 항상 말을 하듯이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自信)이 있다면 그것을 밀고 나가고 자신이 없다면 밀고 나가지 말아야 하겠죠. 이것이 자기 분수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처음에는 요기밖엔 못 디뎠는데 나중에는 저기까지 딛게 됐다 이겁니다, 지혜가 넓어져서. 그랬을 때 차츰차츰 뛰어야 되는 거지 이걸 한꺼번에 뛰려면 안 되니까 살면서 체험을,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체험을 해 나가시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볼 때 오관을 통해서 오신통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백 프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의 법만 활용을 하지 무의 법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욕심 없이,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만이 된다. 즉, 습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얘깁니다. 모든 걸,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두루 편하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했다면 악한 일이 아닙니다. 거짓도 남을 위해서 거짓을 했다면 잠시만 거짓으로 한 거지 그건 거짓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잘 생각한다면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고 또 나를, 나의 중생에게도 이익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타인의 육체나 내 육체나 똑같은 중생이지만 말입니다. 자기 중생을 자기가 이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남을 이익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이겁니다. 잘 생각해야 할 점은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 그거를 마음으로 규정지어 놓고선 '얼마쯤이나 가야 될 것인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을 해봐 가면서 탁탁 밀고 나가 보시라 이겁니다, 의심을 하지 말고. 그렇게 탁탁 밀고 나가다 보면 어떤 거는 자기에게 감촉이 왔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감응이 와서 느꼈단 말입니다. 점점 점점 점점 아주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지는 반면에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밀치고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도 꿈을 꾸어 보셨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집에 살면서 즐거운 것도 순간 돌아가고,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논 것도 순간적입니다. 그렇게 즐거웠는데 그만 돌아서면 순간 허전하고 허황한 게 말할 수 없죠. 또 좋은 집에서 잘사는 것도 금방 망해서 돌아갔을 땐 그 허전함이 말할 수도 없구요. 꿈에 참 좋은데 가서 즐겁게 놀고 즐겁게 살고 하는데도 그게 꿈을 깨고 나면 그렇게 허황될 수가 없죠. 목을 눌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꿈을 깼다면, 야! 꿈이기에 망정이지 이거 생시 같으면 죽을 뻔했다고 할 겁니다. 이게 모두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꿈도 생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꿈이 생시요, 생시가 꿈이듯이 우리가 허황되지 않은 진실을 알아서 그대로 법을 행하는 것이 부처이자 법신이자 보신이자 화신입니다. 용왕도 거기 들어 있고 모두가 다 거기 들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내지 못합니까? 그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공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공하지 못했다면 능력을 그렇게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처 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을 거치지 않는다면 부처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참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말입니다, 역시 부처는 말이 없는 것이 부처입니다. 우리가 또 설법을 하는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즉, 교법이죠. 그건 유의 법이죠. 그리고 말없이 걸레를 빨아서 탁 닦는 것도, 말없이 걸어가는 것도, 말없이 행하는 것도 모두가 부처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말을 하는 것도, 말을 안 하고 하는 것도 그것이 둘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자꾸 변해서 돌아가면서 행하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해 가면서, 일부러 지어서보다도 생활 속에서 그냥 문득문득 다가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장난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할 때 한번 해 보는 거, 하나하나 해 보다 보면 거기에서 완벽하게 자기에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생겨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자신 있게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사회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을 볼 때 과학이 철학이고 철학이 과학이고 과학이 문학이고 이것이 둘이 아니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물질과학으로서 우리의 다섯 가지 능력만 해도 이 도리를 체험해서 아신다면, 우리나라에 급작히 미사일이 건너와서 폭파될 처지라 하더라도 '여기는 안 돼! 못 와!' 하고 못 박으면 못 오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자꾸 체험을 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오게 되고 안으로 굴리게 됩니다. 이게 참선입니다. 안으로 굴리게 되고 자꾸 돌아가다 보면 느낌으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아,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됐을 때에는 '여기는 안 돼! 못 와!' 하면 미사일이라도 그건 못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5년 후에 이렇게 된다 하고 예언을 해 놓은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해선 안 돼! 5년 있다가 하면 이게 될 법한 일인가?' 이렇게 해 놓으면 5년 있다가 그 말이 한데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소인이라고 한 게 그런 데서 오는 거다 이겁니다. 이건 자신이 자신을 발견해서 자유스럽게 그냥 자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한 걸 지워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어저께도 없고 내일도 없이 하루살이로 사느니라.' 왜?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내가 콩씨 얘기도 많이 했고,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는가 하면은 흘러 나가고, 흘러 나가서 다시 돌아서 또 흘러 들어오고 이러는데 두드러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마음으로써 전달되는 한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으로서 우리가 일을 행해 나갈 때 미사일이든 폭탄이든 그게 마음대로 못 하죠. 절대로 마음대로 못 합니다. 무전도 그렇습니다. 우주간 법계에 그 무전 줄이 있어서 '이거는 안 돼!' 하고 차단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 법만 취하지 말고 무의 법을 좀 활용해 보세요

☞ 19면에서 계속

을 시켜 놓으면 그건 안 되는 법입니다. 급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것을 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신통이라 하는 건 신통입니다. 신통은 급할 때 쓰는 겁니다. 무전기도 급할 때 쓰는 거고, 미사일이라는 것도 급할 때, 한생각이면 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다 탐지기도 쓸 수 있고, 컴퓨터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이 이 오신통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귀로 상응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이러는 그 자체가 누가 만들었느냐는 얘깁니다.

그거 생각나기 이전 영원한 자기 생명이, 그 근원이 바로 그렇게 융합하고 또 돌아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내주고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본이 아니라면 오신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신통이라는 것은 말로 오신통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체험을 한 번씩들 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급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피난처가 따로 있습니까? 내 앉은 자리가 피난처지. 육신이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피하려고 애를 써 봐도 되지 않습니다.

생활면에 있어서 체험을 해 본 분들은 거기에서 또 능력을 얻는 수도 많습니다. 또 남을 위해서도 조그마한 체험이라도 해 보시고 자꾸자꾸 들어간다면 처음에는 조금조금 먹다가 나중에는 큰 바다의 물을 다 삼켰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키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삼켰다 내주고 내줬다 삼키기도 하는, 아주 다양하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그걸 진짜 사람이라고 했고 부처라고 했고 선각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몸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나 타인으로 인해서나 또는 내가 봐서나 들어서나 이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했던 분들이 있다면, 또 거기에 의심이 나는 게 있다면 질문해 주십시오.

빨리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시대로 봐서도 그렇고요, 이 조그만 조막댕이만 한 나라에 또 세계적인 올림픽도 한다고 그러죠, 가난한 집안에 말입니다. 손님네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죠. 참, 이것도 한 가정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다가 또 사람이니만큼 남이 잘된다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모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에서 그렇듯이, 한 사람에게 그렇듯이, 한 나라에 그렇듯이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나를 내세우고 하기 이전에 스스로 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한국에 얼마나 이익이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나가도 그렇고 회사를 운영하셔도 얼마나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걸 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다니기만 한다면 그것은 목석인 겁니다, 목석! 생각을 좀 달리해 보고 다녀야죠.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고 또 살면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책보를 끼고선 학교에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강의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 안 해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꼭 해봐야죠. 또 회사에 나가는 사람, 은행에 다니는 사람, 뭐, 기자면 기자, 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지, 누구라도 말입니다.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못하면 찍힌다 했을 때 열심히 해야 하듯이 모든 게 다 공부란 말입니다. 학교 공부만 공부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모두들 수시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하나 자기가 해 나가야지 누가 해 나가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그게 체크가 되는 거라, 자기가! 감응이 오는 거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대로 돌아가면 자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 보지 않는 사람, 그냥 물색없이 왔다 갔다 하고는 해 보지 않는 사람, '이거 뭐, 내가 힘이 없는데, 아이, 내가 뭐, 이런 일을….' 그냥 아예 생각조차도 해 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분명코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목석 아닌 목석이죠. 우리 유의 법만 취하고 사는 사람들, 좀 무의 법을 활용해 봐라 이겁니다. 마음으로써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익중생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서부터는 학교에서 공부했으면 집에 가서도 공부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활면에서 오고 가며 직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법도 한데 미리 잘못돼 가지고 그걸 방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해 봐서 '요런 일은 요렇게 되고 저런 일은 저렇게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돼!' 하는 것을 못 박아 놓을 수 있는 대로 못 박아 놓고, 천천히 차근차근히 시험을 해 보는 겁니다, 오는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차근차근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실감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이익하지마는 남도 이익하고 또 나라도 이익하고 모두가 이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입니까? 체험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라 위태한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두 기복으로만 그저 왔다 갔다 말만 모두 성하고 나 자신은 생각해 보지 못하고 흉보고 잘못한다 잘한다, 정도다 사도다 하고 비판하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는 영 돌아다볼 사이가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공부들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백 년 역사에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급할 때나 맛을 조금씩 본 겁니다, 남이 해 줘서.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하고 실질적으로 가르쳐 줬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너 잘났다 그러고 해서 몹쓸 일들이 저질러진 것이 우리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기 오는 분들만이라도 우리는 이 나라를 아주 융성하게 한 자리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삼국을 통일시킬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세계를 통일시킬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왜? 각각 있으면서도 마음이 한마음으로 돌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마음과 마음이 그렇게 전달돼서 연결이 된다면 죽이려고 단추를 누르지 않을 겁니다. 칼을 들이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 죽이려고 하지 않고 불국토를 이룰 수 있게 우리 인간들이 대성황을 이룰 수 있는 지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도 여러분이 소련으로나 중공으로나 유럽으로나 어디를 막론해 놓고 마음을 던져 놓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던져 놓게 되면은 그것이 다 돌아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 자기가 잘 생각한다면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고
> 나의 중생에게도 이익하게 할 수 있다.
> 자기 중생을 자기가 이익하게 할 수 있어야
> 남을 이익하게 만들 수 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시어머니는 빨래를 하는 데 아주 옥같이 해 놓는데, 며느리가 아무리 따라서 하려도 옥처럼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영 안 가르쳐 주거든요. 죽을 때서야 "꼭 꼭" 하고 죽더랍니다. 꼭 짜면은…, 허허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나는 그렇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그대로 있건만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 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자기가 믿지를 않아요, 우선적으로.

그러니 어떡합니까? 첫째 믿지 않죠? 믿지 않기 때문에 용을 하지 못하죠? 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로 나오지 않죠? 실감 나지 않지? 그렇게 되니까 절망에 빠지는 수가 많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수도 많고 망하는 수도 많고, 이거는 말도 못하죠. 삶의 보람도 없고 그냥 허황되기만 하죠.

이 도리를 안다면 내일 죽고 지금 금방 죽는대도 하나도 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무슨 착잡하거나 또 허황되거나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떳떳한 거예요. 왜 그러냐? 금방 몸은 벗었으나 금방 내가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시려면 오늘서부터는 체험을, 사는 데서 체험을 자꾸자꾸 하세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말입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은 나가서 일하시면서 그 일하는 장소에서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미리 막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시키려면 미리 막아 두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픈 걸 금방 낫게 해주지 않는 법도 있습니다. 또 이 몸을, 옷을 벗기고 죽여서 그 사람을 살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들이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새 기계를 들여놓고 해 나가기 때문에 내가 들여놓은 기계 가지고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 밑져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다고 문을 닫게 되면 벌써 손해야. 그러니 이것을 한생각 내서 다시 설치하게끔 만들거나 기계를 다시금 똑같을 수 있게 조립을 하거나, 한생각 내면 윗사람들이 다 마음을 내게끔 돼 있다 이거야. 돼 있는 연후에 가서 말만 띄우면 되는 거라.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지. 주인의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라.

이렇게 떠 넣어 줘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밥숟가락을 떠 넣어 드려도 먹을 줄을 모른다면 이걸 어떡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서두르는 마음 없이 그냥 그대로 대처해야 될 겁니다.

다니는 회사에 무슨 큰일이 생긴다면 큰일이니까 아예 그냥 다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으니 그대로 해 보시면서 잘 굴려 가면서 체험하면서 자기를 믿을 수 있게끔 만드십시오.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서 모두들 못 하시니까 자기를 자기가 진짜로 믿게끔 만드십시오. 신념이 가게끔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5년 3월 17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⑥ '나'라는 상(相)을 버려라

자녀의 진로, 간섭 말고 진실한 응원을

금융업에서 30여 년간 종사해온 연숙 씨에게는 20대 중반의 딸이 있다. 서울에서 자취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호텔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안고 취업을 준비 중인데, 그 딸의 진로를 고민하며 연숙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주위에 호텔 쪽 근무하는 분 아세요? 저희 딸이 이번에 A, B 호텔 직원채용에 응시했는데 두 곳 모두 합격했어요. A호텔은 3성급인데 정규직이고, B호텔은 5성급이지만 계약직이에요. 아무래도 정규직이 급여도 높고 안정적이니 3성급이어도 저는 A호텔을 갔으면 하는데, 딸은 5성급 B호텔로 가겠다고 하네요. 비록 계약직이어도 본인이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무엇보다 외국인과의 접점이 더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딸은 전부터 럭셔리하고 근사하게 살기를 원해왔는데, 저는 그 점도 좀 마땅치가 않아요. 세상물정을 몰라서 정규직 놔두고 계약직으로 가는 것 같아 말리고 싶네요.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엄청 고생해봐서 잘 알거든요. 혹시 호텔업에 종사하시는 분 계시면 조언을 구해서 딸아이한테 마음 돌리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식의 고생길이 훤하게 보일 때 우리 마음은 어떠한가? 안타까움이 앞서 자식의 마음을 돌려놓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건 비단 연숙 씨에게만 일어나는 마음은 아닐 것이다. 자녀의 진로선택에 있어 부모가 원하는 곳과 자녀가 원하는 곳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경험의 폭과 연륜의 깊이가 다르니 분명 부모가 더 바람직한 판단을 할 확률이 높을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부모의 인생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이라는 점이다. 자녀 인생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 본인이다. 돌봄이 필요하고 미숙한 청소년기 자녀에게는 부모의 조언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성인이 된 20대 중반으로서 자신의 주관이 명확하고, 스스로가 원하는 바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고, 도전할 곳을 알아본 후 채용시험을 준비하고 합격까지 했다면 더 이상 부모가 끼어들 일이 아닌 것이다. 스스로 도전하고 개척해가는 자녀의 열정을 그저 찬탄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는 지지가 필요할 뿐이다.

"따님 잘 키우셨습니다. 괜한 걱정 마시고 야무진 따님을 칭찬해주세요. 앞으로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신이 선택한 곳에선 이겨낼 힘이 나오지만 부모가 정한

성인이 된 자식의 진로 결정이
걱정되더라도 그건 부모 기준
스스로 헤쳐 나가는 힘 격려를

곳에선 부모 때문에 이곳에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원망심이 나올 수 있으니, 그 마음 거두시고 그저 따님을 위해 밝은 마음으로 축원을 해주세요."

부처님 법문에 의지해 사는 불자는 자녀에 대한 집착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잣대와 기준으로 자녀를 대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 성인이 된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며 시행착오를 거쳐 성장하는 기회를 빼앗지 말자.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각자의 배를 조정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 어린 자녀를 키울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녀의 시행착오를 두려워 말자. 시행착오라는 말도 사실 맞지 않는 표현이다. 이름하여 시행착오일 뿐 실은 자녀를 키워주는 소중한 경험들이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신다. 내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지 말고 자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도록 돕자. 자녀를 바라보며,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그들이 진정 원하는 삶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조용한 응원자가 되어주자. 그리고 그들에게 단단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자. 그리고 은밀하게 숨어있는 부모 자신의 두려움을 자식에게 투영시키지 말자. 두려움 또한 아상이기에 그저 나무아미타불로 항복받아야 할 것이다. 한탑 스님께서는 〈금강경법문〉에서 이렇게 법문해주신다.

"만약에 '나는 남을 제도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상(相)입니까? 그것은 '아상(我相)'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제도해야 되겠다'하면 그것은 '인상(人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같이 열반의 세상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은 중생상(衆生相)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내 생명이 귀하구나'하면 '수자상(壽者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고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이 밑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동안, 상대방을 제도하기는커녕 영원히 나 자신도 상대유한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이 없어야 보살입니다.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이 없는 것이 나무아미타불입니다."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⑫ 흡연의 진짜 이유는

담배 대신 산책과 운동을

담배는 고대 마야인들이 종교의식에 이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구로 담배가 전파된 것은 1492년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아 인도의 반대쪽으로 떠났다가 우연히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담배를 알게 된 후부터이구요.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고추와 함께 들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럽에서 초창기 흡연이 널리 보급되는 당시만 해도 담배의 긍정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 입냄새를 제거하거나 각성효과가 있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그때에도 담배의 유해성은 여러 측면으로 사회문제가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2차 세계대전, 여성인권의 신장 등 여러 사회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담배는 전 세계 인구에게 급속히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담배는 소화가 안 될 때나 회충으로 배앓이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담배에 대한 차별이 없어서 여성이 흡연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았고, 어른과 아이가 함께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담배는 한약재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담배의 작용에 관한 조선시대 기록을 살펴보면 가래가 잘 뱉어지지 않을 때, 구역질, 소화불량, 위산역류 등의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반면 담배의 단점으로 담배로 인한 악취, 경제적 손실, 담배를 구하기 위한 육체적 정신적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도 현대와 크게 다른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흡연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타르와 니코틴 함량이 낮은 담배가 인기가 높다는 점입니다. 몸에 나쁜 담배를 피우면서 건강을 생각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모순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흡연자 중에 '타르와 니코틴 함량이 낮은 담배만 찾는다면 왜 담배를 피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담배 이름이 타르 함량이기도 하지요. 타르 함량이 0.5mg인 담배를 피우는 분이 나는 1mg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두 배를 피워도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담배의 품질 기준이 표시량의 ±2mg이라는 사실은 0.1짜리를 피우냐 0.5나 1.0짜리를 피우냐는 고민을 무색하게 하기도 하고, 담배 필터 주변에 뚫려 있는 작은 구멍을 막고 피우게 되면 말보로나 다름없는 타르 함량을 흡입하게 된다는 사실은 이제 흡연자들에게도 낯선 상식이 아닙니다. 반면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6mg 정도의 담배가 일반적이며, 한때는 한국으로 수입이 금지되었던 10mg 이상의 담배도 드물지 않습니다.



흡연, 니코틴 흡수를 위한 습관
한국서는 휴식 문화로 자리잡아
금연 하려면 흡연 대체습관 필요
운동, 게임 등 활용, 금연 습관화

금연에 관한 글을 쓰면서 굳이 타르와 니코틴 함량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언급하는 것은 한국의 흡연가들이 담배를 피우는 진짜 이유를 생각해보기 위함입니다.

원래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니코틴을 흡입하여 니코틴의 작용을 신체가 얻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농도가 낮은 담배를 찾는다면 그건 니코틴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니코틴이 필요해서라면 니코틴 패치를 붙이면 되지 굳이 번거롭게 담배를 피울 필요가 없거든요.

담배가 필요한 상황은 대부분 휴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잠깐 재충전을 할 시간이 필요한데, 바쁜 한국사회는 이런 빈둥거리는 시간을 본인도 주위 동료도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가 몸에 좋지 않으니 끊으라'고는 하더라도 담배를 피우러 나가지 못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동안은 분명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놀고 있지도 않습니다. 불을 붙이고, 연기를 마셨다가 뱉고, 재를 털고, 깔끔하게 불을 꺼야 하니까요. 그리고 흡연은 길든 짧든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담배가 타고 있는 만큼의 시간이지요. 즉 많은 흡연자들의 담배 욕구는 담배가 타들어가는 시간만큼의 휴식이 필요한 것이고, 업무와 관련된 압박이 크면 클수록 더 잦은 휴식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흡연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흡연과 비슷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빈도와 한번 흡연하는 만큼의 시간을, 몸을 움직여서 업무와 무관한 곳에 집중을 하게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책이나 간단한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퍼즐이나 짧게 끝날 수 있는 게임 등도 있을 수 있구요.

한때 수험생들에게 유행한 피젯 스피너 돌리기 같은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집중할 수 있는 활동 이 두 가지가 수반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왕이면 몸에 좋은 활동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업무태만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동준
동국대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60%할인 ₩39,600 총 80매
3+3 소비자가 ~~₩297,000~~ 63%할인 ₩109,890 총 240매
5+5 소비자가 ~~₩495,000~~ 68%할인 ₩158,400 총 40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 강연 영상이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YouTube 심영세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전법 일기

법우들 무한 잠재력 불성은 이미 싹텄다

성신여대 불교동아리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동아리가 반백 년의 역사를 갖는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이는 동아리 활동이 단순히 취미가 아닌 삶의 나침반으로써 사회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결정적으로 법우들의 인생과 인간관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일 것이다. 실제로 동문 법우 중에 비구니스님이 되신 분도 있다. 그만큼 성신여대 법우들은 동아리 활동에 진심이고 적극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동아리 활동에서 법회 시간은 매우 짧다. 일주일에 한 번, 약 1시간의 법회가 전부다. 그나마도 학기 중에만 하고, 시험 기간은 하지 않다 보니 1년에 5개월 정도 밖에 하지 못한다. 1시간 법회 동안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의 간단한 예경과 5~10분 정도의 명상을 하고 나면 불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거나 법문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40분도 채 안 된다. 그렇다보니 법우들이 불교를 이해하기 참 힘들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내 착각이었다. 법우들의 가슴 속엔 이미 불성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작년에 법우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불교를 주제로 작품전시회를 했다. 전 지도법사이신 자우 스님께서 법사를 그만두시면서 학생회장과 함께 당신 절인 비로자나국제선원 1층 카페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해주시기로 하셨다. 어떤 주제로 할지 회의를 거쳐 스스로 정하고 작품을 만들고 배접해 표구까지 직접하고, 카페에 전시하는 것도 법우들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손수 했다.

드디어 전시회 첫날, 동아리 선배님들과 전 지도법사 자우 스님을 모시고 작품설명회를 했다. 신문을 보시고 동덕여대 지도법사 청빈 스님과 불교동아리 학생들도 축하 겸 견학을 오셨다. 본인이 만든 작품 앞에서 설명하는데 한 작품, 한 작품마다 탄성이 나왔다. 그 속에 그렇게 깊은 사유와 바람이 있었다는 걸 알고 적잖이 놀랐다.

원주연 〈해일(海日)〉 - 제 법명 해일(海日)은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와 같은 지혜'입니다. 이 이름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윤회의 한 줄기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실상을 보고 양극단을 걷지 않고 중도를 걸으며, 현재를 사는 지혜를 배워 지금 현재를 살려는 의미를 담은 저의 인생 네 컷입니다.

이연서 〈H〉 - 우리가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고, 그 과정에서 지나치는 모든 경험과 감정을 포용하는 윤회의 신비로움을 담고 싶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채는 윤회의 다양성을 상징하며, 인생의 변화와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태도로, 감정, 경험, 그리고 인생의 여러면을 수용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유은채 〈Hug Me〉 - 나는 또, 가시가 있는 존재가 되겠지. 그럼에도 누군가는 끌어 안아주길 바란다.

지면이 짧아 다 소개하지 못해 아쉽다. 작품전시회를 계기로 대학생 법회에 대한 접근 방법을 완전히 바꿨다. 이들은 이미 훌륭하다. 이 성성적적(惺惺寂寂)한 불성을 잘 발현시키기 위한 조력자로서, 더불어 같이 성장하는 도반이고 싶다.



성신여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시현 스님



송마나의 **시절인연**

봄, 밖이 아닌 내 안에서 찾자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 봄이 오나 보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 속에는 이미 봄기운이 스며들었다. 황구지천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오리 떼들의 날갯짓이 경쾌하다. 재잘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늘어선 벚꽃나무들도 함빡 꽃을 터뜨리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오후에는 황구지천의 벚꽃 길을 걷는 것이 나의 일상이다. 시골에서 벚꽃 길 근처에 사는 호사를 매일 누리는 것이다.

중풍으로 반신을 잃은 할머니가 절뚝절뚝 홀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노부부가 웬만큼 궂은 날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벚꽃 길을 산책한 지는 오래되었다. 할아버지 혼자 걸어도 힘든 산책길이다. 흙바닥이 조금이라도 고르지 못하면 휠체어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 자리에서 맴돌았다. 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도와주려 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겠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이후 서로 만나면 눈인사만 나누고 제 길을 걸었다.

그런 어느 늦가을,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지 않고 할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걷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은 할아버지를 붙잡고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다. 흔들흔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아 나는 일부러 눈길을 돌리곤 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자 나는 뜸하게 벚꽃 길을 찾았는데 할머니는 변함없이 그 길을 걸었나 보다. 드디어 벚꽃이 움트는 계절에 할머니는 휠체어도 할아버지도 없이 홀로 걷고 있다. 각고의 인내로 추운 겨울을 이겨낸 것이다.



그림 · 최주현

한 해 두 해, 한 달 두 달이 지나는 동안 할머니는 첫걸음을 뗐다. 그동안 마비되었던 신경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온 천하에 봄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이제부터 남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제힘으로 걷는다. 그녀는 중풍 걸리기 이전에도 걸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걷는 줄도 모르고 걸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 걷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걷는 것이다. 할머니의 첫걸음은 옛 시대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 시대의 시작이다.

그냥 살아가는 삶에는 기쁨이 없다. 그저 유행에 휩쓸려 이웃의 욕망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참 나가 없다. 내 안에 불성(佛性)이 있는 줄 모르고 밖에 보이는 것을 탐하며 걸어가는 삶은 죽은 삶이다. 발을 잘름거려도 내 힘으로 걷는 것이 본래적인 참 자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을 도(道)라고 한다.

진리를 깨달으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리를 못 깨달으면 사람이 못 된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부처가 되었다는 것이다. 남을 의지해서는 부처가 될 수 없다. 부처가 되기까지, 할머니는 언 손을 호호 불며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기를 수 없이, 무릎에 멍이 들고 발꿈치에 군살이 박혀도 걸음을 옮기고 또 옮겼다.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헤아릴 수 없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바로 내가 사람이 되는 때이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꽃을 보기 위하여 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봄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 내 안에는 이미 진리의 꽃이 피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절뚝거릴지라도 자기 힘으로 걸어갈 때, 봄이 활짝 꽃눈을 터뜨린다.

〈작가〉

기자칼럼

중앙승가대, 위기에도 길은 있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불교의 선지식을 양성하며 한국불교를 대표했던 중앙승가대학. 전통강원교육을 넘어 새로운 승가교육 모델을 제시하며 1979년 3월 돈암동 보현사에서 문을 연 중앙승가대학은 종단과 종도들의 응원 속에 현대 승가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중앙승가대학은 종단, 교수, 학생, 동문들이 합심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사회복지학 등 현대 사회학문을 도입, 불교 복지 인재를 양성했고 불교 사회화에도 앞장섰다. 현대식 교육을 받은 중앙승가대학 출신 스님들이 전국 사찰에서 소임을 맡으면서 종무행정 수준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중앙승가대학 앞에 놓인 과제는 예사롭지 않다. 올해 입학생은 박사 9명, 석사 16명, 학부 19명 등 총 44명. 지난해 박사 17명, 석사 22명, 학부 22명 등 총 61명이 입학했으니 감소폭도 커졌다. 물론, 연간 전체 출가자 수에 비춰보면 입학생 수는 적지 않은 숫자다. 하지만 옛 명성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현실이다.

세상이 저출산 고령화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종교에 대한 관심도 낮아지면서 출가자도 급감하고 있다. 그러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길은 찾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월우 스님은 현대불교 신문과의 취임 인터뷰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언급했다. 출가 체험과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공간 제공 등이 그 예다. 물론 승가대학이라는 특수성과 원칙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동국대와의 통폐합까지 논의됐던 중앙승가대는 올해 1월 이사회에서 통폐합보다는 3월까지 자체적인 현실적 자구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기본교육기관 수용과 행자 교육원 설치, 학과 개설 등 완전히 탈바꿈할 수준으로 바뀌지 않으면 학교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 한국불교 지도자 양성의 요람 중앙승가대학을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는다면 위기에도 길은 있을 것이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움직이지 않는 팔보다 고향가족 먼저 떠올라"

스리랑카 드라하 씨, 골절 · 근육파열 부상
치료비 · 고향 부모님 생계 걱정에 눈물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Hip한’ 사찰건축을 만들려면

현불논단



명법 스님
해인사 국일암 감원

시, 음악, 회화, 조각, 건축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활동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르네상스 이후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의 위대한 천재들이 회화, 조각뿐 아니라 건축에서까지 창조성을 발휘하던 시기와 겹친다. 이전까지 장인들의 기능으로 여겨지던 회화와 조각, 건축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고상한 활동으로 승격되면서 그것을 지칭하는 새로운 개념이 출현했는데, 바로 ‘ars del designo’가 그것이다. 오늘날 예술은 공예·사진·영화·산업·디지털까지 확장되고 심지어 예술을 아름다움과 연관짓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흔히 생각하는 시각적 형식을 넘어 사상과 문화, 기술과 물질을 포괄하는 ‘디자인’ 개념은 예술과 관련하여 여전히 중요한 것 같다.

최근에는 ‘디자인’ 개념으로 한국 전통예술을 정의하려는 시도도 보인다. 몇 년 전부터 불사를 하면서 한옥에 관한 여러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데, 한옥의 본질적 요소를 지붕과 기둥의 비례에서 찾는 건축가도 있고 창호 형식이라고 보는 건축가도 있으며 최근에는 건축물들을 병치하는 구조라고 주장하는 건축가도 있었다. 아직 모두가 동의하는 한옥의 본질을 찾지 못했더라도, 아니 본질을 찾는 모든 노력이 그렇듯이 영원히 찾지 못하더라도, 이런 시도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목조 기와지붕이나 처마선을 한옥의 특징으로 내세우는 과거 미술사가들이 재료와 형식과 같은 단편적인 요소를 중시한 것에 비해 진일보한 해석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탐구를 통해서 비로소 한옥다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오늘날의 필요와 미감에 맞는 새로운 형식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찰건축도 ‘디자인’ 가미를
불사할 때 좋은 설계사도 찾아야
문화재 건축 정책에도 변화 필요

요즘 한옥은 살기 좋은 친환경적 건축을 넘어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가장 힙한 건축이다. 한옥이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할 문화재가 아니라 현대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소구되면서 한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나는 이런 발전이 한옥을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 건축가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사찰 건축에 대한 생각도 바꾸어야 할 때다. ‘전통을 고수할 것인가, 새로운 창작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낡은 질문을 멈추고 디자인의 관점에서 공간을 설계하고 현대적인 건축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재능 있는 건축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집을 짓는 과정을 직접 겪어보니 한옥의 가구구조는 여전히 목수의 솜씨에 달렸지만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려면 단열, 기밀, 방음, 방수 등 현대 건축기술과 콘크리트와 목조, 석재 등 건축재료를 조합하는 구조기술이 적용돼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불사를 할 때 좋은 목수를 찾는 스님들이 많지만 좋은 설계사를 찾는 스님들은 드물다. 압축적 근대화를 겪으면서 거품이 많은 분야가 건축이지만 문화재 건축은 특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설계사와 시공자에게만 맡기다보니 생긴 현상이다. 더 좋은 사찰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와 감리를 모든 건축가에게 개방하고 심의를 통해 좋은 설계안을 선정한 뒤, 현대 건축기술을 갖춘 시공사에게 시공을 맡기는 등의 문화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한옥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전국 각지의 한옥마을과 북촌에 건축되는 한옥들이 그렇게 건축되는 현실을 보면 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의사와 직업윤리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불교 관련 문헌들을 읽다 보면 유독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다. 읽을 때마다 심금을 울리는 말씀도 있지만, 전에는 무심코 읽어갔던 구절이 어느 순간 새롭게 눈에 들어올 때도 있다. 요즘의 내게는 〈보왕삼매론〉의 첫 구절이 그렇다. 평소에는 셋째 구절이나 다섯째 구절에 눈이 갔는데 의사들의 파업이니 면허취소니 하는 뉴스들이 세간을 시끄럽게 하는 요즘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첫 구절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무병장수를 바라지 않는 중생들이 어디 있겠는가 싶지만, 평소와 달리 아파도 쉽게 치료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서 병원 갈 일이 없기를 더 간절히 바라게 되고, 건강 상태에 더 민감해지는 것 같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두고 재연된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은 몇 년 전에 이미 한 차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쟁점이었다. 마침 불어닥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잠깐 휴전했다가 다시금 발화된 사건이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척된 논의는 없는 것 같다. 여론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려는 의사들에 비난이 이어지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시선은 곱지 않다.

‘전문직 프로젝트’라는 이론이 있다. 특정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직업집단을 이루고, 지식을 표준화하고 통제하며,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지식 서비스 시장을 지배하여 상층계급으로 이동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전문직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전문직 프로젝트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전문직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진입장벽 높이는 게 선결 과제
공익성과 직업윤리가 통제 수단

‘전문직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쉽게 그 직업을 얻을 수 없게 진입장벽을 높이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업집단을 배제하는 사회적 폐쇄 과정이 필수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이므로 저항하는 것이고,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한의사나 약사, 간호사를 배제하기 위해 대립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직의 집단이기주의를 통제할 방법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제의 핵심은 공익성과 고도의 직업윤리이다.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익에 부합할 것과 높은 수준의 윤리적 실천을 요구하고 준수하는 한, 전문직은 기득권과 대중의 존경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위반 시에는 추상같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의료수가, 오진한 의사들의 처벌 규정, 저출산 등을 문제 삼는 의사들의 주장이 공익성과 직업윤리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

단 한 번이라도 그 명호를 들으면 “갖가지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없게 하고, 온갖 병이 사라지고 몸과 맘이 안락하며 집안 식구들과 생활물품이 갖추어지고 나아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하리라”라는 약사유리광여래의 자비심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직에 요구되는 공익성과 직업윤리 준수라는 의무를 다했는지부터 엄정하게 성찰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과한 욕심일까?

社 說

조계종 종책 이끌 ‘싱크탱크’ 연구소 기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안에는 연구소들이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 지금은 미래본부 산하로 자리를 옮긴 불교사회연구소부터 조계종 교육원의 불학연구소,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연구실이 그것이다.

불교사회연구소는 호국불교, 종교관련 법 등 종단 안팎의 의제를 연구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불학연구소는 승가교육 교재 개발을 주업무로 한다. 포교연구실은 신행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힘쓰고 있다. 각자 전문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내온 것을 맞지만, 종합적 종책을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다.

조계종은 현재 중앙종무기관 단일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향후 조직 개편 시 종단 산하 연구소를 통합해 종책을 개발하는 ‘싱크탱크’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출가자 감소와 포교 역량 강화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종합적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다.

현재 조계종에는 포교·전법이나 사회적 변화, 대국민 종교 인식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계·수치화 한 데이터는 전무하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종단이 나아갈 아젠다를 설정할 종책연구기관이다. 대중의 니즈를 파악하고 대응해 나갈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단일화 개편에는 여러 논의를 통한 공의들이 모아져야 한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현재 조계종에는 실사구시적 통합 종책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승만기념관 건립, 국민화합 저해 행위

열린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이 나온 이후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성명에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는 3월 5일 회의에서 오 시장을 만나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키로 결의했다.

종교편향특위 회의에서 위원스님들은 강하게 서울시를 성토했다. 위원 제정 스님은 “‘건국’이란 용어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민정치, 독재정치로 점철된 이승만기념관을 송현광장에 세운다는 건 전두환 기념관을 광주에 세운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사실, 한국 공직사회의 종교편향 뿌리는 이승만 정권에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국가를 방불케 할 만큼 친기독교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8차례에 걸쳐 대처승 관련 담화를 발표해 정교분리 헌법을 노골적으로 위배하면서 불교를 내분으로 이끌었다. 정화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불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계기를 박탈한 것이 이승만 정권임은 분명하다.

광장은 통합의 장소여야 한다. 불교의 내분을 이끌고, 공직사회의 종교편향을 뿌리내리게 한 인물의 기념관을 광장의 상징물로 자리잡게 할 수는 없다. 이는 다시 분열과 갈등을 이끄는 행위이다. 송현광장을 일부 진영에 갇힌 공간이 아닌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달라. 그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024 어싱Earthing 제품 특판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베이지

어싱 매트·베개·방석 특판 할인

오직 들꽃잠이 엄선한 그래핀 신소재로
전하는 깊고 진한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열 에너지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